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1012 1982년 12월 22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December 22, 1982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DEC 23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수입군사장비의 40% 공급

북한, 이란에 무기판매

300여명 군사교관도 파견…NYT보도

(뉴욕)북한은 이란이 이라크와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의 주요 공급국이 되어왔으며 이란은 무기대금을 현금과 아울러 석유로 북한에 지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지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방성 국제안보문제담당차관보 프랜시스·웨스트씨의 말을 인용, 금년도에 이란이 수입해온 20억달러 상당의 무기화약및 군장비중 약 40%를 북한이 공급했으며 이란은 북한에 무기대금을 치르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설정한 상한선이상의 석유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이란의 무기, 석유의 물물거래는 현재 비인에서 개최중인 OPEC회의의 논제가 되고 있다.

이란은 OPEC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북한에 무기대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지는 군사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소련제 T-62탱크 150대, 박격포 1천문, 대공 기관총 600정및 12,000정의 소형무기와 화약이 이란에 선적됐으며 이들무기는 소련이나 중공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북한에서 직접 제조된 것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또한 조지타운대학의 알빈·코트렐교수의 말을 인용, 북한은 또 3백명의 군사교관들을 이란에 파견했으며 북한의 군사교관은 대부분 소련에서 훈련을 받았으므로 이점 또한 이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소련의 뜻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소련및 중공으로부터 무기를 받아 이란에 팔았으며 북한의 이같은 대이란무기선적은 소련이 페르샤만지역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작업의 일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란은 북한, 리비아, 시리아, 이스라엘, 소련및 일부 서유럽제국에서 제공받은 무기들이 아니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제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을것 이라고 말했다.

83년 경제성장율 3%
라롱 연방재무상 밝혀

(오타와)막·라롱연방재무장관은 20일 연방및 주정부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캐나다경제는 3%의 성장률을 보일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주 레건·미행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미국경제회복이 예상대로 들어맞으면 3%경제성장은 쉽게 달성되며 만약 미국경제회복이 예상대로 실현되지 못해도 캐나다경제는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을것이라고 라롱장관은 설명했다.

라롱장관은 이어 정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창출을 위하여 세금면제등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온」주 판사
재판거부

온타리오주의 레이드·스코트 사는 20일 온타리오주정부의 간섭으로 사법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캐나다헌법에 명시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재판을 거부했다.

스코트판사의 이같은 재판거부선언은 지난 16일 윌리암·사프판사가 같은 이유로 부주의운전사건의 재판을 거부한데 이은 2번째 선언이다.

현재 온타리오주 지방법원판사들은 제도적으로 온타리오주 검찰총장이며 법무장관인 맥머트리씨 산하에 있다.

◆미래의 하키스타. 20일 「에이릴립스 가든」의 크리스마스파티에 참석한 18개월짜리 크리스토퍼·길버트.

유콘지역소유 결정
연방정부 인디언에 보상키로

(오타와)연방정부는 인디안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콘지방의 땅을 소유하기로 결정했다.

존·먼로 인디안문제장관은 19일 5,500명의 유콘인디안은 $18,300만을 받는 대신, 대부분의 유콘지역땅을 포기하고 한곳에 정착케 될것이라고 말했다.

유콘인디안들은 478,034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유콘지역이 역사상 모두 인디안소유라 주장, 석유, 금을 본격개발하려는 연방정부와 맞서왔다.

73년부터 시작된 이협상은 10년간이나 끌면서 연방정부의 큰 정치적 재쩍으로 남아 있었다. 이 보상안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콘은 북서지역과 함께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자치령(Tevritory)으로 수도는 화이트호스이다.

오늘의 예금금리(11 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양로원 문제
1월12일 2차모임

◆지난 10월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가 범교민적모금운동으로 전개한 워커톤대회에 참가, 연설하는 프랭크·드리 온타리오주 사회성장관. 그는 한인양로원건립을 적극 지원을 약속한 온타리오주 고위 정계인사중의 하나이다.

한인양로원건립운동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한인회주선의 대화의 모임이 새해 1월12일(수) 하오7시 한인회관에서 다시 한번 열린다.

이같은 재모임은 지난 15일 있은 첫모임이 갈보리교회와 동부장로교회 양로원건립위원회측이 불참, 사실상 성과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대화의 모임

단체장 자격으로 조한철씨, 구상회씨, 강공선씨, 조영호씨, 박희민목사, 이상철목사, 윤여화씨와 한인회이사장단과 회장단, 신임 한인회장단및 천중환씨등의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와 갈보리교회, 동부교회측 대표 각 3명씩이 초청된다.

한인양로원건립위
경과보고 주요내용

15일 한인건립위측이 밝힌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와이즈멘클럽이 한인양로원건립운동을 시작한것은 81년도. 이해 9월 한국초대작가전으로 약1만달러의 기금을 모아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변호사, 자문팡(Consultant), 건축설계사를 고용,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데만 약1만달러의 경비가 들뿐만아니라 모금액수가 많을수록 융자금신청에 유리하므로 많은 모금이 모일때까지 서류제출및 보조금 신청을 보류해 왔다.

그동안 「온」주 정부가 원하는 양로원입주자 실태를 조사했었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이는 한국사람들이 〈양로원〉이라면 의탁할데 없는 불우한 노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82년 10월 워커톤의 성공으로 약 2만달러를 추가 모금했고 이날 대회에 참석한 프랭크·드리 온타리오주 사회복지성장관은 한인양로원건립에 적극협조를 약속했다.

연방정부에 제출키 위한 서류작성등의 자업추진도중 갈보리교회가 이미 CMHC(연방모기지주택공사)에 양로원건립융자를 신청했음이 드러났다.

갈보리교회는 2년전부터 교회건축을 위해 20만달러를 모금해 왔으며 CMHC의 보조금을 타기위해 양로원건립으로 방향을 전환, 교회건축헌금을 양로원건축기금으로 돌려 건물일부를 교회당으로 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0개단체가 서로 보조금을 신청했다 아무도 혜택도 못받은 폴랜드인들의 경우를 참작, 갈보리교회측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게 좋겠다고 생각, 화합을 갖고 합의점을 도색했으나 갈보리교회측은 이문제는 교회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교회가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 한인건립위측의 조건을 거부했다.

한인건립위측의 조건은 (1)쌍방의 재산 즉 모금액을 한인전체의 것으로 내놓고 한군데로 뭉치고 서로의 계획을 보완하자. (2)제일 처음 설치된 한인건립위 재단을 중심으로 모으던가 제3의 기구를 설립, 유능한 한인들을 규합 작업을 추진시키자. (3)이왕 일하던 멤버도 계속 간여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4)모든 이익은 한인사회로 돌리자등 4가지였다.

동부장로교회건은 그뒤에 드러난 것이나 범교회적인 것이기 보다 홍순관목사등 일부 교인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융자금신청을 포기하거나 흡수되겠다는 통지가 왔으므로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교회(유재신목사 담임)건은 작년 8월 시작됐으나 그뒤 교회가 양분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온타리오주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한인건립위로서는 교민들이 자료조사설문에 호응을 보여주면 앞으로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로원건립운동을 한인사회에 내놓겠다는 것은 일을 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취지를 오해받고 싶지 않어서이다. 한인전체를 위한 일이 일부교회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예컨대 갈보리교회측이 전화로 설문의 답변을 받아(본인 서명없이) 자료를 조사하는 것등은 정부의 소정의 설문지에다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하는 한인건립위측의 정식 실태조사작업과 혼동을 야기한다.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의 건립자금 신청을 위한 설문은 한국어번역이 함께 포함된 영어설문지로 60세이상자로 양로원건립에 관심이 있거나 입주를 원하는 모든 한인들이 응할 자격이 있다.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는 양로원건립이나 혹는 질문서작성에 대해 전화 826-6664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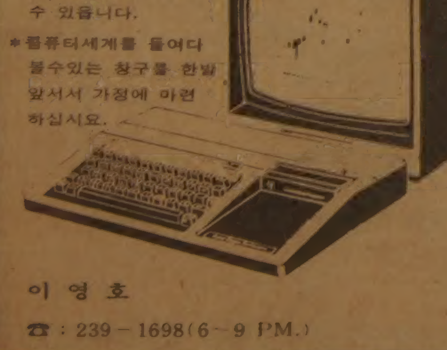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신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4 Bloor St. W

J&S
ELECTRONIC
78 ELMBROOK CR. ETOBICOKE
Home Computer
TI-99/4A
⊙프로그램 습득
⊙비데오게임
⊙가계부관리및 계획
⊙소규모사업에의 응용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읍니다.
*컴퓨터세계를 들여다 볼수있는 창구를 한발 앞서서 가정에 마련 하십시요.



이 영 호
☎ : 239-1698(6~9 P.M.)

IATA
여행을 즐기십시요.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단체 매주 출발
〈CP. JAL. KAL〉
*동남아지역 BUSINESS 특별요금
*세계명소 단체관광
〈구라파, 성지순례, 럭키 국립공원, 하와이 모국산업시찰, 멕시코, 풀로리다〉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이민, 방문 초청안내
83년도 새 달력을 배포중입니다.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7525
IATA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ㅁ16인치 $135
ㅁ18인치 $150
ㅁ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징(Mrs. 징)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볼링협회 송년파티 성대

코리안컵 시상식도 겸해

재캐나다한인볼링협회(회장 정용필)주최, 한국일보 후원으로 지난4일 열린 제2회 코리언컵 볼링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협회회원 교민을 위한 크리스마스및 송년파티가 18일밤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알비온•콤뮤니티•센타(Albion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다.

저녁8시부터 시작된 1부 시상식에서 개인전(남•녀), 부부, 남녀혼합전및 단체전등 3개그룹의 입상자들은 협회회장, 부회장, 한국일보사장, 협회작년도 이사장 및 금년도 이사장으로부터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개인전 챔피온인 최종대씨는 하이파이하우스 박명호사장이 제공한 카•스테레오, 여자1위인 이호숙씨는 볼링볼, 부부전1위인 김동천-김인옥씨조는 미도파 장추신사장이 제공한 전기후라이팬, 핸디캡 남자1위인 김동천씨와 여자1위인 조경숙씨는 동양식품 함태민사장이 제공한 쌀1포, 단체전 우승인 연합교회는 DY총판 오기환씨가 제공한 DY국수 1상자를 각각 부상으로 받았다.(각조의 입상자 명단은 12월7일자 한국일보 참조)

2부 파티순서는 3스테이지로 나누어 5인조밴드의 경음악에 맞추어 댄스파티로 진행되었으며, 스테이지사이에 3차례로 나누어 행운경품추첨이 있었다.

볼링협회 오상균총무는 이번 연말파티는 회원만이 아닌 교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82/83년의 동계리그가 끝나는 내년5월에는 협회총회를 개최,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한뒤 회원만을 위한 파티를 열것이라고 전했다.

◆12월4일 PRO 10 Pin Bowl에서 개최된 제2회 코리언컵 볼링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겸 회원 교민들을 위한 송년파티가 18일밤 알비온•콤뮤니티•센타(Albion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다.

유리•브록힌 피살

FBI, KGB관련여부 조사

(뉴욕발=연착)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 소련사회의 내막을 폭로하는 책을 쓴 유대인 유리•브록힌(48)씨가 뉴욕의 아파트에서 총맞아 암살된 사건이 일어나 미상원정보특별위원회의 모이니한 의원(민주당)이 미연방수사국(FBI)에, 이 사건에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의 관련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2년전에도 같은 아파트의 목욕통에서 그의 부인이 살해당한채 물속에 잠긴 살인사건이 발생, 연달은 피사건으로 수사진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생은 지난 6일밤, 유리씨가 자기방 침대에서 귀의 윗부분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숨진 것을 친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성대 토론토동문회

정기총회겸 연말파티

성균관대학교 토론토동문회는 지난 17일 하오7시 연말파티겸 정기총회를 권병구동문댁에서 개최했다. 83년도 동문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단을 선임한 이날 파티는 새벽3시까지 계속됐다.

신임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권병구
◉부회장 김봉균•호해용
◉총무 이상시
◉재무 정영
◉서기 이대용

신임 권회장은 스카보로지역에서 2개의 큰 버라이어티 가게를 경영하는 실업인이며, 과거 2년간 회장을 역임했던 김영태씨는 이날 종신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초반하락•중반상승

내년도이자율 전망

83년도 이자율은 연초에는 더욱 떨어졌다가 중반기에는 약간 오를 것으로 메크레드•영투자회사가 전망했다.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는 또한 현재 미화81센트선에서 교환되고 있는 캐나다달러는 내년도에는 81.5센트 수준에서 머물것으로 예상했다.

메크레드•영사는 3개월마다 재정전무가들의 의견을 모아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번 보고서는 지난 11월말에 실시 20일 발표했다.

이 조사보고서는 이어 우대금리(Prime Rate)는 내년 1/4분기에 12%로 현재보다 0.5% 떨어졌다가 2/4분기에는 13.25%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탄 메시지>

구원의 축복

반 병 섭(목사•한인교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땅에 오심으로 인류역사는 새로운 기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위해 끊임없는 변혁과 전진을 하고 있읍니다.

참되게 주님이 탄생되는 곳, 복음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개인, 가정, 사회, 나라, 그 어디에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누려지고, 온갖 부조리가 제거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땅에는 어두움과 악의 세력에 지배되어 있는 곳이 많읍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이 완전히 지배되는 「새 예루살렘」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이날을 남달리 맞이하며 경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탄생을 맞은 여러분 위에 “현재와 영원”, 육과 영, 구원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뷰>

노윤거 목사 다시 토론토로

전 한인회장•장로교회 창설자

3년전인 79년 9월7일 토론토를 떠나 파라과이 연합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담당해온 노윤거목사가 지난 8일 토론토로 되돌아왔다.

19년전인 63년에 캐나다에 이민, 이민선두그룹의 1명인 노목사는 박희민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한인장로교회를 창립한 원로목사로 72세의 노령이었음에도 불구, 파라과이한인연합교회를 위해 열심히 힘써 75명이었던 교인수가 300명으로 늘어났다고 20일 본사를 방문한 노목사가 전했다. 노목사는 토론토에 부인과 아들을 두고 있다.

◆본사를 방문한 노윤거목사

노목사는 70년대초 토론토한인회장으로 있으면서 한인회관모금운동에 적극 나서 현재의 한인회관을 마련하는데 기틀을 마련한 인물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인Y 주최

신년교례회

토론토한인YMCA(이사장 전태균)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새해 인사나누기 「신년교례회」를 1월1일 하오 2시~4시 웨스트•엔드 Y회관에서 개최한다.

교민 누구나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친지들과 새해인사를 교환하며, 담화와 다과를 나누면서 친교의 기회를 가질수 있다.(회비는 무료.)

포켓 TV 등장

포켓TV 시대-「러키드•크리스탈디스플레이」화면을 통해 VHF나 UHF채널을 마음대로 볼수 있는 카지오포켓 TV는 무게도 12.35온스(3백50그램)밖에 안나간다고, 배터리로 7시간동안 작동하는 이초소형TV는 내년 6월께 일본에서 2백달러가량에 판매될 예정.〈도꾜〉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각광받는 건강식품『유카』

(LA)지사

자연식품이면서 각종 신체질환을 치료하는 건강식품치료제 유카(YUCA)가 건강식품붐을 타고 등장, 의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교포경영의 제일제너럴무역회사(3921 Wilshire Blvd Suite 414 LA CA90010)에 의해 미주및 전세계각지에 보급되고 있는 유카는 사막한가운데서 자라는 열대식물.

자연식품이면서 약제로 널리 사용

고혈압•관절염등 효능 입증되기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난치병에 속한 고혈압, 관절염은 물론 변비와 설사등 장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유카는 옛부터 미 남서지방 인디언들이 약재로 사용, 「신비의 약」으로 알려져오다 지난 80년초 현대의학에 의해 제품화 됐다.

캘리포니아 데저트핫스프링스에 위치한 국립관절염의학연구소와 라트롭(Lathrop)연구소에 의하면 2천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75년부터 80년까지 5년동안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6개월이상 유카정제를 복용한 각종 질환환자들이 70%이상 치료효과를 나타냈다는 것.

특히 고혈압의 경우 유카를 6개월이상 복용한뒤 혈압을 측정한 결과 혈압이 평균 24정도 떨어졌으며 혈액중 콜레스트롤(고혈압의 원인)수준도 25%나 감소되었다.

이밖에도 임상실험결과 두통, 불쾌감등 정신적질환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한편 유카의 대량생산과 함께 제일제너럴무역회사는 최근 유카제조원인 라트롭연구소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유카의 미주지역과 전세계지역 독점판매권을 따내고 유카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대리점도 모집하고 있다.

제일제너럴의 한 관계자는 유카식물은 1백여종이 있으나 이중 약효과가 있는 것은 수개종에 불과하다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카중 라트롭연구소제품이 효과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유사제품도 눈에 띄고있어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당부하고 있다.

의학연구소및 의료계 전문의에 의해 효과가 입증된 유카는 이들의 추천과 함께 미FDA(연방식품의약국)로부터 식품인가를 받았다.

자연건강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제일제너럴은 「인류의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사시아래 우선 유카보급에 착수, 곧이어 효과높은 각종 건강식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토론토의 미도파백화점에서도 판매 중이다.

망고
•망고•폭스•세블•라쿤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록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성탄•신년예배

종교영화도 상영

토론토한인(연합)교회(목사 반병섭)는 아래와 같이 성탄행사를 거행한다.

◉성탄음악예배: 19일 하오1시30분
◉성탄축하예배: 25일 상오11시
◉송년예배: 26일 하오1시30분(영화「사랑의 원자탄」관람)
◉신년성찬예배: 83년1월2일 하오1시30분(새해인사교환)

무료 영어강좌

이토비콕여성클럽

여성클럽인 이토비콕 우먼즈 클럽은 연령•국적을 막론하고 전 여성에 무료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미술및 공예도 배울 수 있는 이 강좌는 매주 수•목밤7시30분부터 9시까지 계속된다.

연락은 247-4722, 245-3217로 하면 된다.

교민동정

◆함의헌(올림픽후원회장)=오는 27일(월) 장남 승훈군과 조한칠 박사(토론토한인회관 관리위원장)의 조카딸이며 79년도(제5회) 캐나다미스코리아 「미」인 조미상양의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에 바쁘다.

함씨의 따님 승희양은 82년도(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진」이다.

옛날이야기와 우리의 믿음

문 우 일(지구물리학박사)

한 교회에를 나가면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고 싶어지고 무엇인지 자랑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감정이 좀 극단적으로 발전되서 교회간에 알력이 생김은 북미 어느 한국인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시야를 돌려 우리의 전통적 종교, 한국의 기성가치관과 오늘의 기독교인의 태도를 생각해보자. 북미의 몇도시에 살면서 보면 거의 예외없이 어느 곳에서나 교회나 성당에를 안나가면 외톨이가 되는 것같은 환경이 이루어져 있고, 북미에 이주해오는 한국계 사람들은 별로 깊이 생각하는 경우 드물게 소위 "교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또 조부모님들이 믿어온 유교, 불교 또는 산신령님 모심은 간단히 우상숭배라고 쉽게 웃어버리고 있는 것이 가장 하느님의 축복받는 일일는지? 또 북미에서 출판되는 한국계사회의 신문이나 잡지들이 혹시 불교나, 우리 조상의 기성신앙에 관련된 글을 실을때, 북미 한국계사회를 소위 쥐고 흔들려는 교회들을 두려워한다든지, 또는 꺼려해야겠는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때, 1935년 서울에서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과 한국의 무당조합 간부들이, 한 경성제국대학교(지금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모여서 좌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 좌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독자들이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부탁하고, 여기서 생략하겠다. 요는 이 선교사들 밑에서 기독교교리를 배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우리의 기성종교를 존중하고, 필요하면 무당이라도 만나서 다시한번 좌담회를 가져보고 한국인의 참다운 본질을 찾아볼 아량이 있는지? 아니면 그 선교사들보다 더 높고, 성스러워서 감히 우상을 숭배하는 불교인이나 제사를 지낸다는 고향분들이나, 또는 무당을 작대기로 밀어 멀리하려고 할려는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끝나고 백여년이나 지난후 개명기가 왔을 때 독일에 레씽(G.E.Lessing, 1729-1781)이라는 극작가가, 아직도 유명한 작품 “현인 네이탄”을 썼다. 그 내용에 다음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예루살렘에 「네이탄」이라는 유태인 상인이 살고 있었고, 하루는 회교도의 군주인 설란과 종교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 회교도의 군주 설란이 네이탄에게 “당신은 현명하다고 소문난 사람이니 물겠는데, 유태교, 회교와 그리스도교사이에 어느 종교가 가장 옳은 종교입니까?”하고 물었다.

이 질문을 받은 네이탄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시작됐다.

“옛날에 동방에 한 사람이 살고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귀중한 금가락지를 소유하고 있었읍니다. 이 금가락지는 신의 특별한 축복으로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세상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는 그 반지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또 그 아들은 그 아들, 대대로 아들들에게 물려주었읍니다. 이금가락지가 몇 대를 물려주어진 후에, 한 후손은 아들이 셋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이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고,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가까와지자 걱정이 됐읍니다. 생각하던 끝에 그는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보석상에 가서 똑같은 반지를 두개 더 만들었읍니다. 이 사람이 죽을 날이 왔을 때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들여서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축복해준 후 죽었읍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 자기 형제들이 모두 반지를 받았음을 알고, 그중 두개는 가짜일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해서 궁리를 하던 중,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법관을 찾아갔읍니다. 이 법관에게 누구의 금가락지가 진짜이고, 어느 것들이 가짜인가를 판결해 주기를 부탁했읍니다. 물론 이 지혜로운 법관도 어느 금가락지가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읍니다. 깊은 생각끝에 법관이 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반지들을 끼고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가 부탁하신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신의 섭리에 맞게 살면 자연히 너희 자신들이 자기의 금가락지를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닌가?」하고 일러주었읍니다.

레씽의 이 작품이 처음 출판됐을 때, 거의 모두가 그리스도교인인 유럽사회에서는 이 작품이 반교회라는 점, 또는 레씽은 마귀에 걸렸다고 비판했지만, 레씽의 작품들, 특히 이 작품이 아직도 애독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날 유럽사회가 물질적으로 좀더 풍부하고, 기계문명이 앞섰고, 서양남자, 여자들이 지난 몇십년 동안에 키크고, 건장해졌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리스도교인이 되고 싶어야 하는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비판해야 될는지? 아니면 불교인, 유교인, 아니면 무당이라도 우상숭배한다고 마귀 들었다고 할 수 있어야 할는지?

인도사람들은 힌두교가 있고, 아랍사람들은 회교, 서양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유태인들도 유태교가 있는데, 한국사람들은 왜 바람부는대로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로, 그것도 광신적으로 바꾸어야 했는지?

과연 한국민족에게는 서양사람들의 종교를 따르며 우리의 기성종교, 주관성은 멸시해야할 시대가 왔는지?

오십여년전 선교사님들이 무당조합원들과 좌담회를 가졌었다는 사실과, 또 200여년전 레씽의 극작에서 우리가 배울점이 있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낫다고 할 정당성이 없는 것, 같고, 북미만해도 성경은 무당들이 흔한 것같은 상황에서 불교, 유교, 또는 산신령들을 모시는 우리들중의 누구를 우상숭배자라고 나무라면 되겠는가?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독교만이 한국을 구제할 종교라고 부르짖을 시대가 왜 오고 있는지? If? Why? “저는 불교입니다”, “저는 유교입니다”, 또 “저는 산신령님을 믿읍니다”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러러 보여지고, 더 정이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 이런 감정이 당연하여지지 않는 이유는?

“Unser Rangstreit ist dumm, Was andere denken, ist nicht so wichtig, Ich weiβ, wer ich bin, Das ist genug.”(G. P. Lessing)

HERALD TRAVEL SERVICE

1983년도 천우여행사 인류고대문명 요람지 탐방 여행안내

에집트 • 이스라엘 • 희랍

출 발 : 1983년 4월15일(금)
귀 환 : 5월 7일(토)
기 간 : 23일21박
방문지 : 에집트8박, 이스라엘7박, 희랍5박, 빠리1박
요 금 : $3,600
◉왕복항공료및 지상교통비
◉관광및 입장료
◉숙박 1급호텔(1실2인)
◉식사(대륙식 아침, 저녁-빠리는 아침만)
◉호텔 세금및 팁
신 청 : 등록 - 1983. 2. 28 $500 불입
마감 - 1983. 3. 15 잔액

남 미

출 발 : 1983년 5월14일(토)
귀 환 : 5월29일(일)
기 간 : 16일14박
방문지 : 부라질5박, 알젠틴2박, 칠레2박, 페루5박
요 금 : $2,900
◉왕복항공료및 지상교통비
◉관광
◉숙박 1급호텔(1실2인)
◉식사: 부라질-부라질식, 아취/페루-쿠즈코에서 3식
◉호텔세금및 팁
신 청 : 등록 - 1983. 4. 1 $500 불입
마감 - 1983. 4. 15

중 국

출 발 : 1983년 7월(일자 추후발표)
기 간 : 17일15박
방문지 : 홍콩1박, 광주1박, 항주2박, 상해3박, 봉천2박, 기차1박, 할빈2박, 북경3박.
요 금 : $3,600
◉왕복항공료및 지상 교통비
◉관광
◉숙박1급호텔(1실2인)
◉식사1일3식(홍콩제외)
신 청 : 등록 - 1983. 4. 29 $500
마감 - 1983. 5. 31

＊상기요금은 토론토를 기준으로 함.
＊요금은 변동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문의 요망은
HERALD TRAVEL SERVICE
Tel : (416)366-1188 (R) (416)651-8081 (416)928-3335
SHERATON HOTEL(지하상가)
123 Queen St. W. Toronto M5H 3M9(시청앞)
720 Spadina Ave. No. 104
Toronto M5S 2T9(Bloor 남쪽)
타지 도시에서도 참여 가능하며, 미국내 교포참여 환영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런던소식 강상권 지국장

◆강상권 지국장

런던지역의 교민뉴스는 강상권 런던지국장이 담당하고 있읍니다.

기사화하고 싶은 뉴스나, 공지사항이 있으신 독자께서는, 되도록 사진과 함께 강지국장에 연락바랍니다.

런던지국의 주소는:
Mr. Sang K. Kang
506 Talbot St.
London, Ont.
(519)681-6925

회장에 백씨유임
런던노인회 총회

노인회(회장 백병전)는 지난 11일 김철재 회원댁에서 82년 정기총회겸 망년회를 열었다.

50명 회원이 모인 이날 총회는 새해 임원으로아래 인사들을 선출하고, 이제까지 월례회로 매달 모이던 것을 교통불편 때문에 앞으로 4개월마다 계절모임으로 바꾸었다.

새 회장: 백병전(유임)
부회장: 양승옥·김정순
총무: 서정선

런·던망년회 성료
이튿날은 임원진오찬회

한인회는 지난 18일밤 하오6시반부터 1시까지 웨스턴온타리오대학 홀 251에서 망년회를 열었다.

150여명이 모인 이날 잔치는 박상선·하광용씨 사회와 장복인(드럼)·Mrs·정춘철(전자올갠) 양씨의 음악으로 진행되었다. 만찬후 회장인사, 이순천부영사의 축사에 이어 한인회를 도운 아래 외국인들에 대한 기념품 증정이 있었다.

▲기념품받은 인사
◉변호사 댐저
◉계리사 라크
◉연방국무성 보조금을 6년간 타준 알렉산더

이날의 복권추첨에 힘을 준 경품증정자는 아래와 같다. 한국일보사·서울여행사·런던동양식품·팬아시아·배동범·이광필사진관·김택수·이수신(외은)·런던한인회

망년회 이튿날 이순천부영사는 런던한인회 임원진·이사진 부부 30여명을 불고기하우스(정일송씨 경영)로 초청, 오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부영사는 교민들이 궁금해 하는 모국정부의 이민문호개방등에 대해 설명했다.

흐뭇한 예술향연
청소년 문화의 밤

교포 젊은이들의 예술향연인 「청소년 문화의 밤」이 런던한인회 청소년부(부장 정갑송) 주최로 지난 11일밤 7시~9시반 웨스턴·온타리오대학 아트하우스에서 2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연극 「유실물」을 비롯, 피아노 독주, 거문고 연주등 다채로운 프로가 2시간반에 걸쳐 장복인씨 감독으로 엮어졌다.

김중환목사 부임
런던제일장로교회

(런던-강상권지국장)공석중이던 런던제일장로교회에 목사가 부임했다.

지난4월 담임 장회선목사의 LA이주로 8개월간 공석중이던 동교회에 토론토의 김중환 목사가 지난 10일 임시부임, 목회를 맡아보고 있다.

김목사는 서울 신학대학 출신으로 서울중앙교회·총로교회·선교위원회 총무등을 역임 38년간 봉사해 왔으며, 동대문교회 시무중 금년 은퇴, 지난 4월 토론토로 이민해 왔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화려하게 쇼윈도우를 장식한 크리스머스트리

크리스머스·씰 판매시작

▲여배우 브룩·쉴즈양이 1일 조지·부쉬부통령 사무실을 방문, 82년도 크리스머스·씰을 공식전달하고있다. 미국 폐협회가 발행, 폐질환퇴치기금으로 사용하는 크리스머스·씰 판매는 올해로 76년째 계속되어온 연례행사이다. 〈워싱턴- 〉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35〉
출발 ⑯

『포섭 안된 잔불은?』

『그들은 살해되었든가, 아니면 배신자들을 찾고 있겠지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잔불은 배신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다해도 죽은거나 마찬가지지요. 배신자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잔불은 살아남기위해 행방을 감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뿐이고, 그들은 반드시 우리손에잡혀서 죽습니다.』

『그 물건이 지금도 한국에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가 없읍니다. 배신자가 물건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는 두 가지 장애물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는 우리 조직의 눈이고 둘째는 수사기관의 눈입니다. 배신자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두개의 장애물을 돌파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건도 배신자도 아직 한국에 있는게 확실합니다.』

『물건은어떻게포장되어있나요?』

『담배갑 크기정도지만 그보다는 얇은 비닐봉지들속에 넣어져있읍니다. 그것들을 세개의 여행용옷가방속에 나누어 넣었읍니다.』

『가방의 어디에?』

참외눈이 차갑게 빛났다.

『외벽과 내벽 사이에 넣었읍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감췄다해도 그런 [illegible] 세관원들에게서 [illegible] 발될텐데?』

『네, 그렇지요. 감시의 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눈을 속인다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 눈을 속이려하지 않지요. 가방속에 그렇게 채워넣은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매수하나요?』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요. 우리는 각국 공항에 매수자들을 두고 있읍니다. 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돈의 위력앞에 굴복하지 않는놈이 어디 있읍니까. 우리는 그댓가로 해로인을 들고 그들 앞을 유유히 통과하지요. 매수자들의 지원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수가 없지요. 따라서 그런 지원이 끊긴 마당에 배신자가 물건을 들고 단독으로 비행기를 탄다는것은 나를 잡아가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물건은 한국에 있읍니다.』

『대강 알겠소. 그럼 값을 정하기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결정된것을 이야기해보시오.』

그는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팔짱을 끼었다.

『10만달러 드리겠소. 물론 여기에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있읍니다.』

『엉터리같은 수작하지 마시오.』

10만이라니, 이게어디흥정이오?』

『아니, 왜요? 10만이 적은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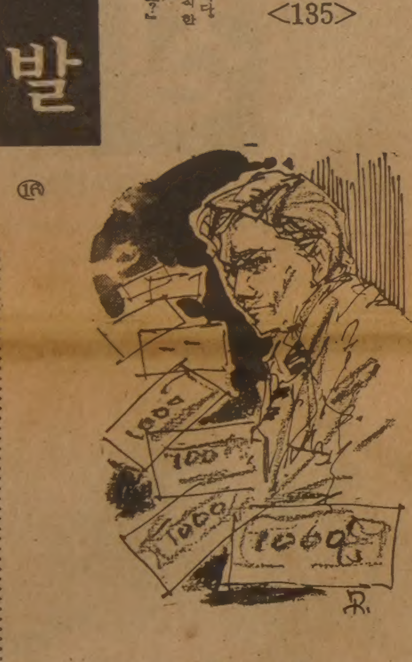
『나한테는 적어요. 나는 내 여자와 생활까지 박탈당한채 위험속에 뛰어드는거요. 알겠소? 그런데 10만이라니…。』

그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럼 15만 드리겠소.』

참은 여전히 머리를 저었다.

"물건은 한국에… 찾으면 10만弗 주겠다"



朴 男 그림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여러분의 년말연시 축하광고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 533-2361)

三國志 〈528〉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크리쓰마쓰 세일

세일품목
Diamond
일본산 진주
비 취
이태리산 14K
삼색목걸이

카나다 보석협회 회원
KORYO JEWELLERS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 분수대옆)
979-3196

한국일보

114회 定期국회 閉會

稅法등 149개 議案 처리

政治議案등 다음회기로

◇空轉·膠着 시련끝내고 겨울방학에

국회는 90일간의 마라톤定期會를 끝내고 17일로 겨울放學을 맞게됐다. 이번 예산국회는 實名制파동과 政治議案등으로 파란·空轉·膠着의試鍊을 겪기도했으나 對話정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기록을남겼다. 이에따라 放學으로 의사당을떠나는 選良들의 표정도 오래간만에 홀가분한 모습들이다.

제1백14회 정기국회가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90일간의 會期를 모두 마치고 閉會됐다.

11代국회들어 두번째 정기회인 이번 국회는 지난 9월20일에 개회, 총규모 10조4천1백67억원의 새해예산안을 與野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각종稅法,금융관계법안등 법률안 1백13(議員發議42件, 정부제출 71件) 동의안 19件, 결의안8, 중요動議5, 기타1件등 모두 1백49件의 議案을 처리했다.

또 국회에 접수된 議案중 請求權자금의 운용및 관리에 관한법률폐지법률안등 17件을 폐기하고 4件은 철회됐으며, 국회법개정안,지방자치제관련법안, 언론기본법개정안, 정치被규제자해제건의안등 政治議案을 비롯한 40件은 다음會期로 넘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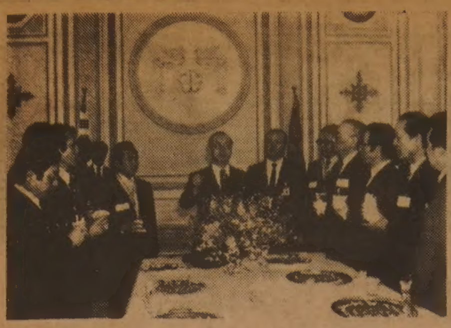
이날 마지막 본회의는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爭點이었던 금융實名거래법안과 이와관련되는 租稅減免규제법개정안을 贊反토론을거쳐 표결에붙여 在席2백55표중可1백49, 否1백6표로 각각 통과되었다.

또한 野黨이 정치회복을주장하면서 會期初부터 내세운 각종 政治議案들은 해당常委에서 小委에계류된가운데 與野총무간의 합의를통해 국회법과 地自制관계법은 내년4월과 6월까지 小委심사時限을 정하는데그쳤고 나머지政治議案은계속절충한다는선에서사실상진전을보지못했다.

국회는 내년1월초 대통령의 새해施政연설을 듣기위해 제1백15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4월중순께 任期가끝나는 議長團과 常任위원장단의 선출을위해 약2주간의 제1백16회 임시국회를 소집할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법안은 다음과 같다.

▲收復지역내 소유자 未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특별조치법안 ▲금융實名거래법안 ▲租稅減免 규제법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系列化촉진법" ▲중소기업사업調整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하수도법" ▲도시재개발법"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법" ▲신용관리기금법안 ▲한국여성개발원법안



"淨化운동 국민 모두참여를"

全대통령, 有功者에 훈장및 포장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7일 하오 청와대에서 사회淨化운동 有功者28명에게 훈장및 포장을 수여한뒤 이들 수상자들과 사회정화위원회 관계인사등 1백99명에게 다과를 베풀고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의식개혁과 사회정화는 정부와 사회정화위원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질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국민모두가 스스로 채찍질해가며 꾸준히 추진해나가야만 성취될수있는 우리모두의 과업인것』이라고 전제, 『그러므로 국민여러분은 각자가 새역사창조의 主役이라는 主人의식을 가지고 개혁의 열정과 克己의 인내로 사회정화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국민의 의식과 사회底邊에 아직도 깔려있는 否定的요소들은 정부가 힘으로 단속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없어질 일도 아니며, 법령과 제도를 고친다고 단시일내 해결될 일도 아닌것』이라고 지적 하고『국민 각자가 부단한 자기 省察을 통해 올바른 마음씨를 지니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정의사회구현의 첩경이며 지름길이라고 굳게믿고 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특히 『그간 우리가 이룩한 外形的이며 物量的인 발전에비해 정신면에서의 성숙도는 미흡했던점을 우리는 솔직이 반성하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자리에는 朴寶緖총무처장관과 金聖基사회정화위원장이 배석했다.

國會폐회연 참석

全斗煥대통령은 17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열린 제114회 정기국회 폐회宴에 참석, 의원들과 환담을 나눴다.

가봉經濟長官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7일하오 靑瓦臺에서 가봉의 오귀스텡·에르보·아켄뎅게 國營기업개혁및 혼합경제장관을 접견했다.

이자리에는 金東輝상공장관과 가봉의 실베스트르·라팅가외무차관, 알롬바예·지파노駐韓가봉대사가 배석했다.

傳貰돈 최우선 갚도록

店舖 겸용주택등 範圍확대

民法개정안 연내 國會제출

정부는 17일 소액임대차(전세)보증금을 은행의 담보설정등 모든 채권보다 최우선해서 갚도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현행 주거용건물에서 「주택의 일부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며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해 부동산사기를 방지하는것등을 골자로한 3개민사관계법률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통과한 민사법개정안은▲민법▲주택임대차 보호법▲부동산 등기법 개정안등 3개로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 현행 주거용건물(전용주택)에서 주택의 일부를점포, 사무실,공장등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전세입주자)의 주거권까지를 보호하도록 했으며 이미 전세를 주고있는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전 집주인의 임차(전세)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집주인이 바뀜에따라 보증금을 억울하게 떼이는 사례가 없도록했다.

또 월세형식의 임대차계약보다는 전세계약이 월등히많은 현실정을 감안, 미등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해 주택전세자를 보호할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 또는 전세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또는 전세권이 보증금반환시까지 계속되는것으로 인정했으며 집세의 인상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세를 올릴수없도록 했다.

社告

15회 한국創作文學賞결정

中堅작가 尹興吉씨 受賞

수상作은「꿈꾸는자의羅城」

한국일보사가 文學振興을위해 해마다 뛰어난 기성작가들에게 시상하고 있는 한국創作文學賞(상금1백만원)의 금년도(제15회) 수상자로 중편「꿈꾸는자의 羅城」(文學思想 82년3월호게재)을 쓴 중견작가 尹興吉씨(40)가 17일 결정됐읍니다. 전북井邑 태생인 尹씨는 1968년 단편「회색면류관의 季節」로 한국일보社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등단한이후 사회와 개인의 상관관계나 한국적인 정서를 그린 작품을 발표, 절찬을 받아왔읍니다.

그는 느리면서도 착실히 독자의저변을 넓혀가는 大器晩成型의 작가로서 70년대말부터는 日本문단에서도 관심을 끄는등 한국문학의 世界化에 앞장서고 있읍니다. 만장일치로 수상작이된 「꿈꾸는자의 羅城」은 날로각박해지는 오늘의 사회현실과 그속에서 시달리는 한 무력한 개인을통해 故鄕과 失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보인 문제작입니다. 이상의 시상식은 1월하순께로 예정돼 있읍니다.

한국일보社

아파트投機轉賣 1천5명 적발

讓渡稅등 31億 추징

서울江南지역

국세청은 서울 江南지역 민간아파트투기전매자 1천5명에게 양도소득세,증여세등 모두 31억4천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키로했다고 17일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11월부터 서울狎鷗亭洞의 現代아파트,開浦洞의 美都·京南아파트,瑞草洞의 漢陽아파트,蠶室의宇成아파트등 5개 유명민간아파트의 전매자 1천5백49명을 적발, 추적조사한끝에 투기전매자로 밝혀진 1천5명에대해 양도소득세 29억8천5백만원,증여세 1억5천9백만원등 모두 31억4천4백만원을 추징한것이다.

국세청은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5백44명에대해서도 양도인과 매수인, 관련복덕방과 주택은행 분양신청서, 계약금과 분양금의 실제납부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포착, 무겁게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투기전매자의 기준이▲청약예금 통장을 거래한경우▲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중간 전매자를 누락시키고 싼값으로 직접 전매한것처럼 조작한경우▲직계 존비속간에 사고판경우이며 전매자들에게는 당첨권 프리미엄 소득에 과세할수있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최고세율은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75%세율이지만 이번경우는 아파트가 미처 완공도 되기전 프리미엄을 붙여 입주당첨권을 전매한 것이므로 프리미엄소득에 대한 세율 50%를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로부터 프리미엄액수를 신고받고 당국이 조사한 월별 아파트별 층별 평형별 가격 70%이하로신고한 경우에한해 세무조사를실시,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아파트 투기전매자의 프리미엄은 최저20만원에서 최고 5천5백만원, 평균 6백만원으로 밝혀졌는데 최고액프리미엄인 5천5백만원의 경우 세무서에는 작년9월9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판것처럼신고했으나 추적조사결과 지난8월 5천5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여 전매된사실이 확인되어 3천3백만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11월 이들 5개 민간아파트분양자 4천6백91가구중 33%인 1천5백49가구가 투기전매된것을 밝혀내고 전국에서 동원된 30개반 3백45명의 조사반을투입,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이번추적조사결과 전매자가 가장많이 적발된 아파트는 狎鷗亭洞現代아파트로 분양가구수 2천68가구중 43%인 8백88가구가 전매됐고 瑞草洞漢陽아파트는 4백56가구중 52%인 3백9가구, 蠶室宇成아파트는 5백85가구중 1백85가구, 開浦美都아파트는 1천2백4가구중 1백61가구, 開浦京南아파트는 4백8가구중 6가구가 전매자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12월하순부터 서울시내 1만6천3백60개 복덕방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 사업자등록 여부및 탈세, 투기행위를 계속추적조사, 탈세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美서 遺傳子 주입 「大型생쥐」創造

生物學者들 實驗성공

【샌디에이고(美캘리포니아州) AP=聯合】 미국생물학자들은 보통 쥐의 유전자를 작은 생쥐에 주입하여 거대한생쥐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동물의 種을 개선시킬수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샌디에이고의 솔크 생물학연구소가 16일 밝혔다.

시애틀소재 워싱턴대학의 리처드·팔미터 박사는 유전인자이식으로 참조되는 동물거대화현상이 病理的인 거인증으로 고생하는 인간의 상황과 비슷하므로 앞으로 거인증을 연구하는데 활용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유전자 주입에 의한 생쥐의 거대화실험이 성공함으로써 동물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촉진시켜 상업적으로 유용한 동물의 種을 만들어낼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와아울러 동물들을 인간에게 유용한 유전자를 생성하는 이른바 『生物工場』으로 만들수있는 가능성도 열렸다고 그는 말했다.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自然)지에도 상세한 내용이 소개된 생쥐의 巨大化실험은 성장유전자를 보통쥐의 뇌하수체로부터 분리시켜 이유전자를 작은 생쥐유전자의 ADN(디옥시리보核酸)구조속으로 주입하는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험에는 미국펜실베이니아대, 워싱턴주립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과학자들이 참여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社會漫評

질서찾은 「三寒四溫」

地平線

미국 샌디에이고의「솔크」生物學研究所는 보통 쥐에서 成長에관계된 遺傳子를 뽑아 생쥐에 注入, 두배나 큰쥐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대단한「成功」이다. 遺傳工學은 드디어 動物을 變形시키는「妙術」을 거든히 부린 셈이다. ▼遺傳工學은 이미 先進國家에서 한 戰略産業으로 대접받고있다. 이것은 頭腦集約産業이므로 국가마다 의욕만 있으면 손쉽게 착수할 수 있다. 또 重化學工業같은 거대한 裝置産業이 아니므로 웬만한 人力과 能力만 있으면 開途國일지라도 충분히 해낼수가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國策産業으로 지정되어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섰다. 학계서는 벌써「遺傳工學학술協議會」가 발족하였고 산업계엔「유전공학研究組合」이 결성되었다. ▼최근에는 民正黨에서「遺傳工學育成法」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음會期로 이월된 이 法案은 주로 유전공학의「育成」과 그 성과의「産業化」, 그리고 政府의 정책적 지원을 유도한는데다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권장·육성해야 할 단계를 못 벗어나 있다. 그러나 육성·발전 이후의 문제, 그리고 육성해가는 그 과정에서 생길 문제에도 생각은 미쳐야 할것 같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전공학研究는 모두 착수단계에 있는 상태여서 필요한경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危險」에대한 경험이나 데이터는 축적된것이 아주 적다. 다행히 생각보다 危險이 덜하다는 것이 실험과정에서 나타나 있고 희망했던대로 人類에게 유용한 결과들이 나타나리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국내 한 製糖회사 연구소에선 인터페론 生産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어 그 유용한 결과를 가까이서 실감케한는것같았다. 미국과 日本에서는 올해 들어 유전공학「實驗指針」을 대폭완화하여 病源미생물을 除外한 대장균·枯草菌·효소등의 宿主투입은 거의自由롭게 만들었다. 동시에「靈長目」이 아닌 下位生物의 DNA供與에 대한「안전대책」도 많이 풀어주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어떤 과정에서 猛毒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번식, 漏出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遺傳工學은 아직 초창기 未知의 단계이다. 그 世界에 우리도 겨우 발을 들여 놓은 상태다. 부지런히 발전시켜 有用한 결과를 얻게하는 한편「安全」을 확보하는일 또한 소홀히 말아야 한다. 立法時 꼭 고려할 사항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세네카
College
년말파티
장 소 : EMBERS 레스토랑
781 Warden Ave.
에그린톤 남쪽 sears 앞
일 시 : 1982년12월29일(수)
오후7시.
※정장을 요함. Cash Bar이용
연락처 : 회 장 이병학 431-9283
부회장 김정수 368-1975
※경품 추첨함
(1등 $200이상등
푸짐한 선물)
한인세네카
동문회

고향의 맛
식당
서울하우스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주7일 Open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15 BLOOR ST. W.
532-0602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현재 주류면허 신청중.

연말·연시 파티용
싱싱한 회감
주문에 신속배달
●횟감 : *민어 *튜나
●신선한 생선 : *아지
*가재미
*동태
*새우
*물오징어
항상 준비되어 있읍니다.
(파티용 TRAY는 3일전 예약바람)
3413 FIELD GATE DR. MISSI.
(블로아와 딕시에서 2블락 동쪽에 위치)
624-3092 임호빈
FOREST GLEN
SEAFOOD

아르헨서 대규모 示威

10萬群衆 몰려 軍政종식 요구

勞組員등 경찰과 충돌

◇廣場을 메운 아르헨 데모隊 10만여명의 아르헨티나인들이 16일 정부청사앞의 유서깊은 마요광장에 운집, 民政복귀를 요구하며 反정부시위를 벌이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17일UPI電送=聯合】

【부에노스아이레스AP聯=聯合】 10만명 이상의 아르헨티나군중이 16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서 군정종식을 요구하며 반정부시위를 벌였으며 이를 진압하려는 기동경찰과 충돌,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5개 정당과 노조및 인권옹호 단체들이 주도한 이 시위는 지난76년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이래 최대규모의 반정부시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를 위한 행진』이란 이름 아래 처음에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이날 시위는 곳곳에서 경찰과 젊은 시위대원들 간의 충돌로 번졌으며 경찰은 시위자들을 해산하기위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B52추락 9명死亡

美空軍、훈련비행중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UPI聯=聯合】 美공군소속 B52 전투기 1대가 16일상오 새크라멘토부근 매더공군기지를 이륙한직후 지상으로 추락폭발하여 승무원9명이 전원사망했다고 美국방성대변인이 발표했다.

더글러스·케네트 국방성대변인은 사고전투기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공군사령부 소속으로 일상적인 훈련비행도중 추락했다고 밝히고 전투기에 핵무기는 적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수들은 매더공군기지로부터 6km가량 떨어진 사고현장에 급파됐으나 적재된 탄약들의 폭발로 기체잔해에 접근하지 못했다.

한편 목격자들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마치 네이팜탄처럼 폭발, 불기둥이 1백m상공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中·蘇 副外相級 회담

2월 모스크바서

東歐圈 外交소식통

【北京聯=聯合】 중공과 소련은 양국관계를 개선하기위한 제2차 부외상급회담을 내년2월하순부터 3월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할것같다고 모스크바의 동구권 외교소식통들이 16일 말했다.

양국은 이미 2차회담을 모스크바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회담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진것은 지난11월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갑작스런 죽음과, 이에따른 여파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소련과 중공은 3년간에 걸친 예비접촉을 가진후 지난10월 北京에서 지난20여년의 불화를 해소하기위한 실무자급회담을 개최했었다.

안드로포프 21일 중대演說

【모스크바聯=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는 오는 21일 크렘린궁에서 소비에트연방 창설60주년을 맞아 취임이후 첫번째의 중요공식연설을 가질계획이다.

취임 5주째인 안드로포프는 외국인뿐 아니라 소련국민들에게도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며 많은 주요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도 그다지 표명된바 없으나 이번 연설을 통해 어느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가 지난 72년의 소비에트연방창설50주년행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안드로포프는 대내외정책에 관해 수시간동안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바웬사連行 9시간만에 석방

【그다니스크(폴란드)AP聯=聯合】 폴란드의 전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16일 당국에 연행됐다가 9시간만에 석방됐다고 그의부인 다누타여사가 밝혔다.

다누타여사는 바웬사가 연행된 9시간동안 무슨일이있었는지 밝히지않은채 바웬사가 17일 기자회견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바웬사가 폴란드식량폭동발발 12주년을맞아 레닌 조선소밖 기념탑앞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연설예정 수시간전인 이날상오 10시30분(현지시간) 바르샤바 번호판을 단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온 사복경찰들에 연행됐다가 9시간만인 하오7시30분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바웬사가 연행된후 자유노조그다니스크지부의회계부정사건과 관련, 소환장을 보냈던 지방검사실에 연행된 것같다고 말했으나 국영방송은 그다니스크특파원 보고로 바웬사가 형사재판을 관장하는 지방인민위원회의 한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었다.

平統 정책자문회의 83년 활동계획협의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는 17일상오世宗문화회관소강당 협의회 회장단회의를열고 82년도 활동실적을 종합분석평가하고 83년의 자문위원활동계획을 협의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사회정화운동 有功수상자 명단

◇국민훈장 ▲冬柏章=李相彬(서울시정화추진협의회사무국장) 崔載勳(釜山市〃회장) ▲木蓮章=崔建作(충북도〃사무국장) 南光鉉(淸州고등학교교장) 金性植(서울시교위장학관) ▲石榴章=黃壽岩(大邱市南區 정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 金正洙(경남〃) 成栢(충남〃) 許宇烈(釜山鎭區〃) 徐相欽(淸州市〃회장) 吳光協(西歸浦市〃회장) 元鍾錄(晉州市〃) ◇紅條勤政章=高準秉(치안본부경무관) 鄭南石(釜山市東區청장) ◇綠條〃=黃圭潤(관세청행정사무관) 李基鉉(大田市지방서기관) ◇玉條〃=南仁熹(치안본부경위) ◇국민포장=尹明鎬(水原市정화추진협의회사무국장) 申泰和(太白市〃회장) 金위鉉(扶安邑정화추진위위장) 朴塤洪(전남정화추진협의회사무국장) 李相濬(경북盈德郡〃회장) 李忠柱(鎭海대야국민학교교감) 朴漢慶(서울시서기관) 尹甲炳(충북교위 행정사무관) 玄寅洙(내무부〃) 金鍾起(濟州道지방행정사무관) 金載毅(서울시경정)

"北傀、北送교포 人質로 金品갈취"

在日 전향간첩 梁達珍씨 記者회견

10代소녀 추행후 간첩교육도

『한국엔 거지만 우글거린다는 朝總聯의 말만믿고 평생을 속아 왔으나 막상 조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한 뒤로는 모두가 허위였음을 처음 깨달았다』

在日전향간첩梁達珍(63)은 17일하오 東京民團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자신의 심정을 밝힌뒤 『북괴는 북송교포를 인질로 삼아 조총련에게 금품을 갈취하고있다』고 폭로했다.

濟州道 翰林이 고향인 梁씨는 국민학교를 나온뒤 42년5월 日本에건너와 東京아라까와(荒川)區에서 고무공장직공생활을 해오다가 불고기음식점을 내어 안정된생활을 해왔다.

그는 아들 梁榮基(39)를 북송시킨뒤 조총련에 갇이빠져 강제모금과 비합법적 지하활동을 계속해왔으며 73년 조총련의 金振聲 아라까와지부 위원장에게 포섭되어 소위 『통일사업』이라는 이름하에 對南전화를 위한 간첩활동을 해왔다.

梁씨는 주로 일본에 건너온 밀항자 유학생 친족방문 여행자를 포섭하여 북송선에서 사상교육을 시켰다.

지난여름 梁씨가 서울에있는 93살의 노모를 만나보고 싶다고하자 金振聲은 梁씨를 民團에 위장가입시켜 국내간첩망을 조직하라는 지령을내렸다. 梁씨는 이러한 지령을 받고 지난7월 한국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그러나梁씨는 36년만에 본 조국이 몰라볼정도로 발전했고 국제도시東京과서울이 비슷한데 놀랐으며 초가집의 고향마을이 모두 기와집으로 바꿔어진데다 거지만 산다는 거리모습이 현대식건물로 들어찬데 놀랐다. 梁씨의 마음은 이내 흔들렸고 끝내는 전향을 결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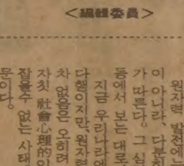
梁씨는 黃海道 松林中學校에서 교사생활을 한다는 아들이 매년 편지를 보내오고 있으나 그내용이 『金日成 수령덕분에 잘산다』면서 끝부분에는 『시계10개와 양복 그리고 폐결핵약인파스를 사서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있어 『북한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것인가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梁씨는 75년10월 日本에온 金榮姬양(19)을 포섭, 金振聲에게 넘겼더니 金은 金양을 비밀아파트로 끌고가 추행한뒤 간첩훈련을 시키는등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梁씨는 그밖에도 조총련은 북송교포를 인질로 삼아 金日成생일자금, 조선인학교운영자금, 중앙간부에게 주는 연말상납금등 명목만있으면 돈을 뜯어내고 있으며 북송교포들에게 자동차만 보내주면 개솔린을 배급해주겠다고 선전하고는 실제로 휘발유를 주지않아 차를 쓸수없게되자 차를 몰수, 간부들이 타고다니는 사례도 털어놨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메아리

3兆원 訴訟



金昌悅
<編輯委員>

지금 미국 뉴욕의 연방법정에서 40억달러 (약3조원) 싸움이 벌어지고있다. 새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1쯤이 걸린 싸움이다.

싸움은 원고 제너럴·퍼블릭·유틸리티, 피고 배브콕·앤드·윌콕스등 두 회사간의 손해배상소송이다. 쟁점은 79년 4월28일에 일어났던 펜실베이니아州 드리마일·아일랜드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있느냐는것. 발전소의 소유회사인 원고측의 주장은 원가로 볼 때 피고회사의 안전·운영 지침이 잘못되어 사고가 났으니 사고로 인한 손실 30억달러와 발전소를 淨化하고 재개하는데 든 10억달러를 갚으라는 것이다.

원고측 주장에 의하면, 드리마일과 유사한 사고가, 그보다 18개월앞서, 오하이오州 데이비스·베스발전소에서도 있었다. 그 때 원자로 운영지침의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제작사측이 그사실을 통보하지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운영지침에는 잘못이없고, 오로지 현장요원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 피고측의 反論이다. 이처럼, 시설과 기술에는 탓할데가 없으니, 어느 쪽이 옳든 문제는 「사람」으로 귀착한다.

드리마일 사고가 제기한 근본문제가 바로 여기있다. 원자로의 시설과 기술이 완벽한데도, 몇사람의 「失手」로 멜트다운 (爐心溶解) 직전의 사고가 났다면, 과연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다고 할수있겠느냐는 문제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미국의회에서 공개된 한 조사보고서는 멜트다운이 일어날 확률은 원자로 1기당 10만년에 1회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악의 멜트다운이 일어나면 10만명이 죽고 3천억달러(약2백25조원) 의 손실이난다. 사고의 확률은 사람이 벼락(隕石)에 맞아 죽을확률보다 적지만, 났다하면 엄청난 참사가 난다는 결론이다. 이래도 원자력을 개발해야 하는가.

물론 다른 견해도 있다.

드리마일사고는 멜트다운에 이르기전에 「저절로」 끝이 났다. 오히려원자로의 안전을 증명한 것이다. 이사고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쐰 방사선量은 평균 1·5밀리렘—뢴트겐 사진 한번의 10분의 1미만이다. 그들은 사고직후의 여론 조사에서 62%가 원자력발전을, 58%는 드리마일의 발전재개를 찬성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으로 생각하여서는 이주장이 반가울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동중인 古里1호기에 더하여, 月城1호기가 이달 들어 시험가동을 시작했고, 앞으로 90년대까지 13기, 2천년대까지 40기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다른 代替에너지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며,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과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니,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테니, 설마 사고야 나겠느냐—이렇게 넘길수만은 없는것이 원자력이다. 원자력 사고가 「失手」로 일어날 수 있다는 드리마일의 교훈이 있으니 더욱 그렇다.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잠시 거론 됐었다. 얼마전 방한했던 미국인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趙舜衛의원이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李正五과기처장관은, 미국전문가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기술자가 40명뿐이라 했으나, 韓電에 40명, 원자력전담회사에 6백명, 에너지安全센터에 1백50명의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다고답변했다 (한국일보11월4일字3면). 더 이상의 추궁이나 답변은 없었다.

이에서 보듯, 어제 막을 내린 정기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중에서, 그 중요성에 합당한 만큼의 관심을 끌지 못한 문제의 으뜸이 원자력이다. 아마 국민들의 무관심을 반영함일 것이다.

그러나 관심이 없다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멜트다운같은 대참사야 일어나지않는다고쳐도, 원자력은 적잖은 환경문제를 제기한다. 古里발전소의 溫排水가 어장을 망치고 있다는 조사보고가 그한가지 증명이다. 드리마일 정도의 사고만난다해도, 그손실은 우리 경제규모를 넘어선다. 그것을 40억달러 소송이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는 高度技術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분히 社會心理的인 문제가 따른다. 그 심각성은 외국의 反核운동에서 보는 대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문제가 없다. 다행이지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음은 오히려 걱정이다. 그 때문에 자칫 社會心理的인동요가 생길 경우, 걷잡을수 없는 사태에 이를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다른 모든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은 원자력의 利益과 危險負擔을 알아야 한다. 그 기초위에서 냉정하게 논의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것이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하여 꼭필요하다. 그것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길이다. 국민들의 무관심위에 언제까지 安住할듯이 생각하는 원자력정책은,길게보면 결코 현명치가 못하다.

동물「種」개선으로 産業用 활용가능

—美서 생쥐 遺傳子이식 성공계기

食糧·藥品생산…에너지源化

巨人症등 질병도 치료

◇생쥐가 유전공학방법에 의해 일반쥐처럼 크게될 수있다는것이 입증되었다.

【워싱턴17日=李文熙특파원】 유전공학에 의해 거대한 생쥐가 탄생했다. 미국 생물학자들은 보통쥐의 유전인자로 평범한 생쥐에 주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어린생쥐보다 1·8배나 큰생쥐를 얻는데 성공했다. 한종의 유전인자를 다른동물의 유전인자에이식하여 발육시키는 이번 방법은 사상처음으로 성공한것이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솔크생물학연구소와 펜실베니아대학, 워싱턴주립대학, 샌디에이고의캘리포니아대학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로 성공시킨 이번「생쥐」의 거대화실험은 지금까지 실험실에서만 가능했던 유전자조작이 성공화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연구소는『이번실험의 성공은 유전자공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자체평가하고있다.

이번실험은 보통쥐의 뇌하수체로부터 성장호르몬 유전인자를 분리시킨다음 이 유전인자를 작은 생쥐의 유전자에 이식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상적인 생쥐의 수정란에서 생쥐의 성장호르몬 유전인자를 제거시키고 그자리에 큰쥐의 유전인자를 주입시킨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1백70개의 생쥐 수정란을 어미생쥐의 자궁속에넣어 21마리의 생쥐를 얻어냈다. 새로태어난 어린 생쥐 21마리중 7마리가 보통쥐의 성장호르몬유전인자를 가진 생쥐임이 확인됐으며 그중 6마리는 정상적인 생쥐보다 1·8배의 크기까지컸다. 보통쥐만큼크게 자란 이들 6마리의 거대한 생쥐를 조사한 학자들은 이들이 정상적인생쥐의 성장호르몬 분비량보다 8백~1천6백배나 되는 많은 호르몬을 분비, 생쥐의 정상체중보다 거의2배까지 자랄수있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토끼의 유전인자를 쥐에 이식하거나 토끼의 유전인자를 쥐에 이식하는실험이 성공한 예는 있지만 그 유전자의 현질을 실제로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실험에선 이식된 유전인자가 다른종(種)의 동물안에서도 기능을 발휘, 실제로 유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것이 특기할만하다.

과학자들은 이번실험의 성공으로 동물의 종(種)을개선시킬수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고있다. 이같은 실험이 인간에 대해서 실시될 가능성은 없지만 성장호르몬 유전인자의 이상으로발생하는거인증·왜소증을 치료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나아가서 이번실험의 성공으로 동물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촉진시켜 상업적으로 유용한 우량種을 만들어낼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인간에게 유용한 유전인자를 한 동물에서 추출, 이것을 다른 동물에 이식시켜 인간의 필요에 맞게 동물을 대량으로 改種생산할수 있다는 가능성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동물이든 탄생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간의 유전인자를 동물에 이식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는 인간의 유전인자를생쥐의 수정란에 이식시키는실험을 승인했다고 한다. 앞으로 인간에 가까운 잡종동물들이 출현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방법도 가능해졌다. 즉, 코끼리만한 돼지를 탄생시킬수 있게된 것이다. 몸은 코끼리만큼 크지만 살은 돼지고기 그대로 먹음직한 가축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꿈이 한발짝 앞당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의 종(種)을 유전자조작으로 잡종화시킬 수 있

그러나 유전공학은 유전병의 치료, 농업생산성의 향상, 화학품·약품의 새제조방식,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있다.

축산분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질을 생산,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고있다.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酵母나 박테리아를 이용하는방법이 이미 상업화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영국ICI社연구진은단백질생산박테리아를 연구한끝에 메틸알콜을 단백질로 바꾸어놓는 성능좋은 박테리아를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이 회사는 연간 7만톤의 단세포단백질을 생산하고있는데 아직 식용으로는 부적합하여 동물의 사료나 양어장의 먹이로만 쓰고있다.

또한 최근 美의 제네테크社가 유전공학방법에의해 개발한 소의 성장호르몬은 단시간내에 성장시키고 또한 젖소의 경우는 산유량도 증대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 80년대중에는 상업용으로 실용화 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한種子대여회사는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젖소에 배란촉진제를 사용하여 난자를 뽑아내고 그 수정란을 다른젖소에 이식시켜 우량젖소로 개량하는데 성공했다. 성공률은 60%를 넘고있다.

유전공학의 가능성은 무한한것같다.

美·日등 선진국들은 대체 에너지개발에선 유전공학을 원용한 계획을 세우고있다.

미국의 MIT와 위스콘신대학등 우수한대학들이 이분야의 연구에 착수했다.

농업분야는 일찍부터 육종학이 발전했던분야. 최근 몇년사이에 유전공학의 붐이일면서 육종연구는 가속적으로 발전을 보이고있다. 미국에서는 질소고정 뿌리혹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벼에 주입시키는 연구나 해바라기에 콩의 단백질 유전자를 이식하는등의 실험에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美프리토레이社는 감자세포만으로 감자를 증식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 미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전세계 식물유전자의 원재료를 확보하기위해 식물유전자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고있다. 유전공학은 또한 동·식물 유전인자의 결합에까지 손을 뻗치고있다.

유전공학은 지금까지 신비로 남아있던 種의 본질 바꾸어말해서 神의 영역에의도전이다. 그 가능성도 가늠하기 어렵지만은 그에 따라 있을지 모를 위해도 불분명하다.

◇機內서의 멋진 패션쇼 2명의 男女패션모델이 16일 알리탈리아항공사 소속 점보여객機내에서 열린 「나는 패션쇼」에 출연,멋진 의상을 자랑해보이고있다。 【로마16日AP電送=聯合】

疾病·기아로 2초에한명씩死亡

유니세프 兒童健康보고서 지적

금년들어 질병과 기아로 숨진 어린이는 2초에 한명꼴에 달한것으로 16일 공개된 유엔아동기금(UNICEF)보고서가 밝혔다.

UNICEF보고서는 아동국가들에 대한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건강상태는 수년전에비해 훨씬 더 나빠졌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천년에가면 적어도 6억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서 홍역·백일해·디프테리아·파상풍·소아마비및 결핵등으로 매년5백만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있으며 파상풍 한가지병만으로 죽는어린이가 하루2천5백~3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엔본부=聯合】

海外토픽

음식찌꺼기로發電

★인도네시아서야심적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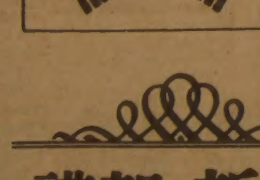
6백50만명의 주민이 버리는 음식찌꺼기등 쓰레기의 처리문제로 고심하던 자카르타시는 쓰레기처리방안으로이찌꺼기를이용, 전력을생산할계획이라고.

그런데 자카르타시는 쓰레기를 이용, 인조비료를 생산한 경험도 갖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비료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싼 것으로 판명됐다고. 【자카르타=AP】

中共에쥐피해극심

사람까지물어뜯어

中共에서는 쥐의 천적인 족제비·올빼미·뱀·고양이등이 약에 중독된 쥐들을 잡아먹고 많이 죽는 한편 사람까지 물어뜯기는등 쥐로 인한 피해가 크게 번지고 있다고 上海의 한 조선소노동자는 15일 당기관지 인민일보독자란에 투고한 편지에서 중공에서 가장 크고 현대화된 도시인 상해에서까지 쥐들이 어린애를물어뜯고조선소의전기시설을뜯어누전을일으키는등극성을부리고 있다고지적. 【北京=聯合】



謹賀新年

밝은 새해를 맞아
존당의 만복과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비오며
삼가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전화 : 463-8998

온 누리에게
우리 교포 교민 여러분

卍

법회 안내

저무는 임술년을 장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활산성수 화상님을 모시고 법회를 개최하오니
우리 중생 무릇 참례 있으시길 맞이합니다.

때 : 1982년 12월26일(일)
곳 : 대 각 사(11 Dawson Ave.)
연 사 : 활산성수

감사의 말씀

지난 19일 저의 어머님 대각사 창건주 김평동심 영가 49제를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신 불신도 여러분및 교민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오나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대표 유일환
동환 드림

未婚母가 늘고있다

性開放풍조…棄兒 매년 6~7萬명

미혼모(未婚母)가 늘고있고 따라서 기·미아(棄·迷兒)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정확한 통계마저 없는실정. 기아발생은 매년6~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상담소방문자를 통해본 미혼모 숫자도 60년 36명에서 78년 3천명으로 무려 10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청소년들간에 성개방풍조가 날로 만연돼가고 있는등 성에대한 가치관의 혼란때문에 빚어지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재력이없고무지한사람이많이포함돼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서울구세군에서 경영하는 여자복지원한군데뿐이며 정부차원의 보호시설은 없는실정이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큰사회문제로 등장한 미혼모·기·미아발생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85년까지 전국에 미혼모보호시설을 7군데로 늘려 분만비, 특수치료비등을 지원토록했다. 또 미혼모가 친권(親權)을 포기할 경우 민간기관등을통해 입양을 알선하는한편 공단지역 여성근로자와 여중고생들에대한 성교육·가족계발교육을 실시하여 내무부와 협의, 현재2백23명뿐인 부녀상담요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미혼모보호시설은 부랑인 윤락여성등 요보호여성을 위한 전국26군데의 부녀직업보도소에 무의무탁한 미혼모를 보살피기위한 시설설치, 신축비등을 우선지원, 미혼모보호시설로 전환시켜 6개월~1년을 단위로 분만전후조리 입양기관알선등 사후조치를 해준다는것이다.

이밖에 지난10월중 5천명이상의 여성근로자가 일하는 공단을 중심으로 6개도시의 2천5백여명에대해 실시한 성교육을 연차적으로 계속하면서 시도교육위원회와함께 여중고생에대한 가족계발교육도 함께 벌이기로했다.

보사부는 또 가족계획협회와함께 성교육교재 5만부도 만들어 배포중이다.

지난 60년부터 운영돼온서울구세군 여자복지원의경우 60년에 36명이던 미혼모가79년에는 1백4명으로 3배가 넘고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보호율은 1·84%(추계)에머무르고 있으며 친권을포기한 어린이의 올해국내입양도 지난9월말까지 國南1백40명 京畿1백29명등 9백76명에 불과한실정이다.

한편 한국경제개발협회가 지난80년 미혼모2백10명을 표본으로 면접조사한바에 의하면 미혼모중 60%는 24세이상이었으나 17세이하도 4~7%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중 27%는 불의의변을 당했지만 20%는 친구와 어울리다 임신한경우로 성에대한 무지또는 무책임한 개발풍조가 심각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중 55·7%는 영·육아원에 신생아를 위탁하고 있으며 20%는 본인이 직접 기르거나 친척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부녀직업보도시설에 수용된 미혼모등 부녀자수는 2천8백62명에 이르고있다. 【任韻淳기자】

英語방송試驗확대

李문교, 高入고사에

李奎浩문교부장관은 16일하오『광주지역의 고교신입생 선발고사에 방송을통한 영어청취력 시험방법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全南교위를 방문, 全南교육감으로부터 올해 처음 실시한 木浦·光州지역의 방송을 통한 영어청취력시험방법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이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이어 방송을 통한 영어청취능력의 평가방법은 각시·도교위가 자체적으로 개발, 실시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새해가 성큼…

◇X MAS장식을 만드는 여인네들의 손길엔 크리스머스와 새해가 성큼 다가와 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창조해내는 그들의 손끝엔 내년에는 샌터클로즈 할아버지 피 함박웃음만큼이나 시원스럽게 웃을수 있게되기를 기원하는 염원이 실려있다。

푸모리峰 첫 겨울登頂

한국산악회 南善祐씨 單獨으로

【카트만두AP聯=聯】 한국의 남선우(27)씨가 17일 네팔 북서부지방에 있는 해발7천1백45m의 푸모리峰 등정에 성공, 겨울철에히말라야峰을 정복한 최초의 한국인이 됐다.

네팔 관광성당국은 17일 남씨가 푸모리峰정상을 이날 하오6시12분(현지시간) 정복했다고 발표했다.

남씨는이등정에서세르퍼인 라크파·지암첸(30)씨의도움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와 라크파씨는 푸모리峰정상을 정복한후 정상에태극기와 네팔국기를꽂았다。

두사람은 해발6천4백50m부근에 설치된 캠프 2에서 17일아침 정상공략을 시도해 성공했다.

날씨 또추워져

내일 한때 눈 / 오늘 釜山 영하2도

대부분의 초·중고가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이번 주말 우리나라는 濟州를제외한 전국이 모두 영하권에 들어 추운날씨가 계속 될것같다.

중앙기상대는 17일 지역적으로 눈또는 비가 내린뒤 우리나라는 중국대륙에서 확장되는 고기압의 전면에 들어 토요일인 18일부터 전국이맑고 기온은 영하11도까지 떨어지며 일요일인19일에는 눈이 한차례 내리고 기온도 비슷하며 추운날씨가 될것같다고 예보했다.

한편 기상대는 17일하오4시를기해 전북 전남 서해안 및 전남내륙지방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예상최저최고기온은 10~15도。

◇18일의 예상최저기온 ▲서울-7▲春川-11▲大田-8▲全州-4▲光州-3▲大邱-4▲釜山-2

美戰鬪機 추락

忠南瑞山부근에

주한美공군소속 F16전투기1대가 16일 하오3시30분께 충남瑞山부근에서 추락했다고 17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표했다.

미군사령부는 추락한 F16기는 이날 또다른 F16기와 미해병3·2항공대소속F4팬텀기등 2대와함께 편대비행훈련중이었다고 밝히고 조종사 데릴·L·하위대위는 낙하산으로 비상탈출했으며 긴급출동한 헬기에의해 기지로 옮겨 현재 신체검사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사회指導層 폭력 일제團束따라

금호호텔(大邱)社長 구속

【大邱】 大邱지검 특수부(朱光逸부장검사)는 16일 사회지도층 폭력행위에대한 일제단속에나서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장이며 大邱금호 호텔사장인 金英基씨(46·大邱中區下西洞28)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 이날자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에의하면 金씨는 지난10일 하오8시30분께 자기가 운영하는 금호호텔 7층회의실에서 고교동기회 송년회를 하면서 大邱三扇제약대표 河五明씨(46·大邱中區南山3洞2416의2)와『경북개발의 주식을 매입하려는것을 못마땅히 생각하는이유가 뭐냐』고 시비, 호텔복도로 끌고나와 河씨의얼굴을때려 전치 10일의상처를입힌 혐의이다. 【聯合】

집근처놀던 두아이 行方不明 4일

【太白】 집근처에서놀던2명의 어린이가 4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있어 부모들이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창석씨(30·상업·太白市黃池洞12통6반)의 차남 승호군(5)과 김성문씨(40·상업·黃池1洞12통2반)의 장남 창욱군(6)등 2명이 지난14일 하오1시께 집근처에서 놀다 17일 현재까지 돌아오지않고 있다. 【聯合】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82
H245-3539

빙판길… 곳곳서 輪禍

서울 市외버스 三重衝突 트럭운전사 壓死

직행버스 미끄럼 1명死亡 14명부상

16일 하오8시40분께 서울江南區牛眠洞 송동부락 앞길에서 빙판길을 과속으로달리던 경일여객소속 경기5아2294호 시외버스(운전사 尹基道·44)가 삼중충돌로정차해있던 트럭들을 다시들이받아 길가운데에서서 다투고있던 인천7다2215호 4·5톤트럭운전사 裵鍾鎬씨(27)가 트럭사이에 끼어 그자리서 압사했다. 이날사고는 낮에내린 눈으로 미끄러운 도로를달리던 트럭들이 미처 스노타이어를 준비하지못해 삼중추돌을 일으켜 트럭기사들끼리 사고처리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사이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맨뒤에있던 트럭을받아 일어났다.

【南原】 17일상오 8시50분께 전북 南原市 龍崗洞 全州~南原간 국도 17호 노상에서 全州에서 南原으로 가던 호남여객소속 전북5아5015호 직행버스(운전사 송정호·45)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南原국도유지 건설사무소소속 전북 7가 1354호트럭(운전사 황의철·46)을받아 트럭운전사 황씨가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밖에 버스안내양 (20·群山市 京岩洞572) 승객 이성환씨(54·全州市德津洞1가136)등 14명이 중경상을 입고 南原시내 李正雙외과에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聯合】

雪嶽山 호텔들 豫約 거의매진

【束草】 설악산의 호텔과 콘도미니엄들이 설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밀려드는 예약으로 객실이 매진단계에있다.

17일현재 뉴설악등 3개호텔 3백1개객실은 90%가예약됐고 나머지도 2~3일내로 끝날것같다.

또 明星과 한국설악콘도등도 3백81가구분의 객실이 크리스마스와 신정연휴에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쇄도, 이미 예약이 끝났다.

그러나 서림호텔 그린빌라등 1급여관20여개소를 비롯 78개 일반숙박업소의 예약은 10~20%선에 예약이끝났다. 【聯合】

서울大병원에 「小兒病院」

李順子여사 참석 起工式거행

소아과전문병원인 서울대학교 소아병원기공식이 17일하오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와 병원관계자및 의학계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서울시鍾路區蓮建洞 서울대학교병원구내에서 거행됐다.

영부인李여사는 이날 축사를통해 『어린이건강의 중요성과 소아과질환의 특수성에 비추어 소아병원의건립은 의학계는 물론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였다』고 말하고 『특히 복지향상이 중요한 국가적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고있고 최근 어린이들의 교육과 건강에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때에 소아병원이세워지게된것은 매우뜻깊은일』이라고 밝혔다.

李圭光피고인 어제保釋허가

大法院

李圭光피고인(57·전 광업진흥공사사장)에게 17일하오 보석이결정됐다.

李哲熙·張玲子부부어음사기사건 상고심재판부인 대법원형사3부(주심 吳成煥대법원판사)는 이날 李피고인의 변호인 鄭明來변호사가낸 보석신청이 이유있다고판단, 『보석금 5백만원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李피고인의 주거는 현재이송돼 치료를받고있는 서울大병원으로 제한됐다.

李피고인은 李·張사건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이었다.

李피고인은 지난달 7일새벽 지병인 췌장염등이악화돼 심한복통과 혈변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빠져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서울大병원12병동107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면서 9일엔직장종양제거수술을 받았고 항소심선고공판(11월15일)도 병실에서 임상재판으로 이뤄졌으며 지금까지 서울大병원에서 계속치료를 받아왔다。

李피고인은 1심에서 한차

엘리베이터 타려다 地下室에추락 重傷

【蔚山】 16일하오6시45분께 蔚山市玉橋洞 패밀리호텔 1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한광태씨(39·釜山市影島區青鶴洞)가 엘리베이터 지하실로 떨어져 양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입고 기독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나 중태다.

한씨는 이날 친구 2명과함께 이호텔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던중 친구 2명이 먼저 승강기에오르고 뒤따라 오르려다가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린 상태로 작동,2층으로올라가는바람에지하층으로 떨어져중상을입은것。【聯合】

4명拘束 1명수배 항아리 不法引揚

【莞島】 전남莞島경찰서는17일 黃鍾煥씨(33·전남莞島郡郡外面 永豊里341)金鐵明씨(28·전남 莞島郡外面달도리132) 잠수부 李光龍씨(27·麗水市德忠洞1323의7)등 4명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金龍年씨(37·전남海南郡北平面南倉里37)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7일 상오11시께 전남莞島郡郡外面院洞里 교동 북방3백m지점 해저에서 문화재인것으로 보이는 소형 항아리2점을 불법인양해 金鐵明씨집에 숨겨놓고 판매처를 물색도중 경찰에 적발된것. 【聯合】

전보사부次官 朴承咸씨

전보사부 차관 朴承咸씨(사진)가 17일 새벽 5시 서울鍾路區松峴洞58 자택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57세 발인은 19일 상오 11시 장지 경기南楊州郡眞乾面龍井里선영 연락처 ⑫3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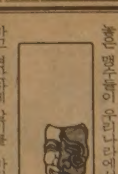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구독신청 배달사고 535-2391

猛獸들

"그놈들이 觀客을 기쁘게 해줘야"

동물輸入商 全泳俊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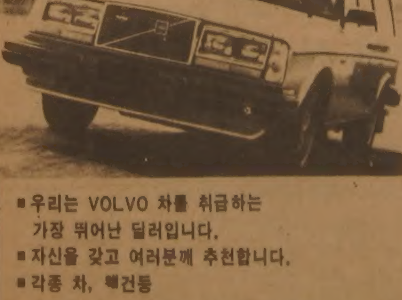
동물원의 맹수들에게는 고향이없다. 野生하는 자유의 신선함을 잃은것은 이미先代적의이야기이고,맹수들은 철책에 갇혀 세계의 이 동물원,저 동물원으로 팔려다니며 온갖 인간들을 구경한다. 알몬주나의 수원에 기록하였듯 『우리에 갇힌 맹수는 우리를 슬프게한다』 그의앞발의 한없는 절망。

동물을 수입하는 全泳俊씨(35·사진·서울江南區卵驪洞現代아파트78동603호)는 자신이 끌어다놓은 맹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늑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호랑이들이 하루종일 관람객을 외면하고 자빠져있지만 말고, 이따금씩 어슬렁거리기도해서 어린이들을 기쁘게해주었으면 한는것이 그의 바람이다.

그는 자신이 수입한 창경원의 흰곰에게 이따금씩 먹이를 가져다 주기도한다. 수입동물이 공항에 도착하면 한 밤중에라도 달려나가 우선 먹이부터 「진상」을 한다. 1년에 1백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야하는 무역가인 그는 고국에두고온 세딸이 그리울때 마다 딸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찾아 외국동물원을 혼자서 기웃거려 본것이 동물수입에 눈을 뜨게된 계기가 되었다. 내딸 뿐아니라 조국의 어린이들에게 늠름하고 날랜 맹수라도 한마리 끌고가서 보여주고 싶다는것은 아버지된 사람의 자연스런 소망이리라.

그러나 맹수를 옮긴다는 것은 끌려가는 맹수도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끌고가는 사람에게도 쉬운일은 아니다. 맹수를 철책속에 넣고 1~2개월씩 배를태워 끌고오는동안그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섭생을 맞추어 주어야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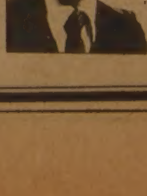
그는 지금까지 곰, 표범등 53마리의 동물을 수입했다. 그의 손을 거쳐 우리나라에온 동물은 창경원에도있고 釜山·馬山동물원에도 있다. 동물시장마저도 일본상인들에의해 석권되고있다는것이 그의 한탄이다.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미각국의 동물원에서 사오면 젊고 튼튼한 놈을 보다 싼값에 몰고 올수 있다는 주장이다. 싼값에 동물구경을 할수있고 일본세에 도전하는 면도 있어 그의 「동물수입」은 일거양득이다. 【徐華淑 기자】

S.T.S Motors
이제는
VOLVO를
타실 때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햇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7664 (로버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보성교우
망년 파티
82년도 총회및 망년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전 교우께서는 가족동반으로 오셔서 귀여운 자녀들과 더불어 즐거운 한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 시 : '82년12월30일(목) 저녁 6 시부터
장 소 : 364 The East Mall, Etobicoke (레크레이션 룸)
연락처 : 안경용(☎ 621－9510) 정근영(☎ 621－2955)
보성중고교
교우회장 안경용

송년금식대성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은 금식 기도로, 누구든지 오셔서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우리의 애타는 간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것입니다.
◎장 소 : 오순절기도원
◎시 일 : 12월29일 오전10시부터 3일간
◎강 사 : 박준하목사 이필주목사 장세택목사
◎준비물 : 성경·찬송가·세면도구 필기도구 (담요)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물게지 상담)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 1251
535 1260
R) 536 4250

每週 할렐루야對戰

또하나 프로축구 油公팀 創團

油公프로축구팀이 17일하오 서울신라호텔본관 강당서 창단식을 갖고 국내 두번째 프로팀으로 발족했다.

『축구붐을 조성, 축구중흥에 이바지한다』는 기치를내걸고 발족한 油公축구팀은새해1월4일부터 2월28일까지 馬山·全州·鎭海·釜山등지서 합숙훈련을 실시한후 3월에 할렐루야와 첫대전을 가질 예정이다.

趙圭鄕단장, 李鍾煥감독과 金正男코치로 출발한 油公은 18명의 선수를 확보했는데 국가대표출신이 李康助·黃石根등 10명이나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현재 할렐루야와 油公의 연간경기스케줄을 작성하고있는데 전용구장이 마련되기전까지는 각지방을 순회, 매주말 1회씩 경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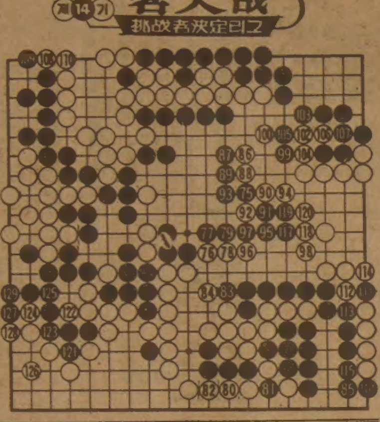
◇油公선수

이름	위치	연령	출신고	전소속
朴英洙	GK	23	경희고	해룡
吳連敎	〃	22	한양대	한양대
崔基奉	FB	25	산업대	해룡
李章洙	〃	26	연세대	웅비
崔慶植	〃	25	건국대	대우
金明官	〃	23	광운전공	웅비
金剛男	HB	28	고려대	홍콩해봉
金成男	〃	28	고려대	홍콩해봉
白南洙	〃	22	한양대	한양대
辛允基	〃	26	영남상	서울시청
金龍海	〃	25	마산공	한일은
黃石根	FW	23	고려대	고려대
金昌浩	〃	26	전남기공	서울시청
李康助	〃	28	고려대	고려대
金鍾鎬	〃	22	고려대	고려대
金鍾世	〃	22	중동고	한전
辛文善	〃	24	연세대	대우
朴商基	〃	23	산업대	서울시청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10譜 175~229 (각5시간·덤5집반)

白(7段)徐奉洙〈名人〉
黑(7段)盧永夏〈1段〉



盧7段, 半집 분패

전보에서 공연한 욕기를 부리다 극도로 미세한 바둑을 만든 徐7단은 黑75로써 중앙을 확실히 처리하자 『여기까지 몇수 있나? 그렇군』 자문자답을 하고는 서둘러 白76·78을 선수한 다음 白80·82를 두었다. 결과부터 밝히면 이바둑은 白이 겨우 반집을 이긴 아슬아슬한 승부였다. 집을 연신 세어보면서 하는 무리없는 끝내기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 98까지 되었을때 黑7단이 머리를 긁으며 『알만해도 부족한걸. 반집…아니 반집』 하고 徐7단을 쳐다본다. 『글쎄, 아직 잘모르겠는걸』 徐7단도 이무렵에는 목산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인지 말을 마치고서도 계속 판을 훑어본다.

黑99와 白100의 교환은 어떻을까. 국후에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해가 안되는 수. 다만 黑101은 마지막 큰곳이고 白102이하 106이 다음 큰곳. 좌상귀 白108의 4집 끝내기로써 그동안 아리송했던 승부의 선이 차츰 확실해지고 있다.

黑122는 그냥 1 23에 치받는것이 약간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렇게 두었더라도 특국시 마지막수 관계로 반집차를 黑은 좁힐수가 없었다고 한다. 白130이하는 총보로 미룬다. 116…113

리바운드볼 다투다 韓銀 尹振九、企銀 任琪烈에 원투 스트레이트

◇몸싸움 남자C조 延世大와 雄飛의 접전. 延大 兪載學⑥과 雄飛 李秀一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延大가 88-81로 승리.

대통령盃 대회

「拳鬪式 농구」

入院소동… 制裁키로

男=企銀·漢陽大·現代·三星·延大·雄飛·海龍·產銀 8强에
女=換銀·託銀·코오롱·國民銀·東邦·韓國化·太平洋·第一銀

한국남자농구의 뿌리로 자라온 韓國銀行 尹振九선수가 코트에서 폭력을 행사, 큰물의를 빚었다.

尹振九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 남녀농구대회 5일째 예선리그 최종일 企業銀行과의 대전서 경기종료 56초를 남기고 企銀센터 任琪烈과 리바운드볼을 다투다가 任의 얼굴을 원투스트레이트로 강타, 任이 漢陽大병원으로 후송되는 불상사를 빚었다.

금년 스카우트에서 한명도 뽑지않아 기로에 놓여있던 韓銀은 이날의 불상사로 뉴델리 아시안게임 우승의 감격이 채 가시지않은 남자농구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양팀은 후반경기가 치열해지면서 선수들사이에 자주 실랑이가 일었는데 1분31초를 남기고 企銀 金東光이 드리블을 하며 치고 나가다가 미스된 볼이 韓銀 崔龍默의 손을 맞고 밖으로 나갔다고 林俊圭주심이 판정하면서부터 말썽이 빚어졌다. 韓銀의 崔龍默은 자신의 손에 맞지않았다고 항의하다가 테크니컬파울을 선언당했고 金東光이 75-70으로 앞서고있는 상황에서 자유투 제2구를 실패, 尹振九와 任琪烈이 리바운드 다툼을 벌이다가 任이 쓰러졌었다.

두 선수의 격화된 감정은 56초를 남기고 발생한 자유투상황에서 尹振九가 리바운드볼을 다투다 尹振九가 任琪烈의 팔에맞아 코피를흘렸다. 격분한 尹振九는 任琪烈을 원투스트레이트로 강타, 任을 쓰러뜨렸다. 尹振九는 中部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한편 농구협회는 폭력을휘두른 尹振九에 대해 적당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는 초반부터 韓銀이 주도권을 잡았으나 후반 企銀의 반격에 말려 企銀이 76-73으로 역전승했다.

대한학도의 마지막 보루인 延世大는 雄飛와의 예선C조경기서 兪載學의 뛰어난 활약과 高明和·金賢俊의 安으로 雄飛를 88-81로 제압, C조수위로 결선에나갔다.

한편 여자C조의 東邦生命은 金和順·車良淑의 맹활약으로 鮮京을 64-43으로 꺾고 마지막으로 8강에 올랐다. C조선는 東邦生命·韓國化粧品·鮮京이 모두 1승1패를 기록했으나 골득실에서 鮮京이 열세, 탈락했다.

B조의 國民銀行과 코오롱의 대전서는 코오롱이 62-55로 국민은행을 이겨 B조 수위를 차지했다.

이날 예선리그를 마친결과 남자부에서는 企業銀行·漢陽大·現代·三星·延世大·雄飛·海龍·產銀, 여자부서는 外換銀·서울信託·코오롱·國民銀行·東邦生命·韓國化粧品·太平洋·第一銀行등 8강이 결승토너먼트에 올랐다.

◇제5일예선리그최종일

▲남자A조
기업은행 76 (41 35 / 37 36) 73 한국은행

▲동순위=①기은 2승 ②한은 1승1패 ③한양대 2패

▲동C조
연세대 88 (43 45 / 47 34) 81 웅비

▲동순위=①연세대 2승 ②웅비 1승1패 ③동국대 2패

▲여자C조
동방생명 64 (28 36 / 18 25) 43 선경

▲동순위=①동방 1승1패 ②한국화장품 1승1패 ③선경 1승1패 (이상 골득실차)

▲B조
코오롱 62 (31 31 / 29 26) 55 국민은행

▲동순위=①코오롱 2승 ②국민은행 1승1패 ③조흥은행 2패

마라도나 肝炎증세

【바르셀로나(스페인)=外信綜合】스페인의 바르셀로나팀에서 활약하고있는 아르헨티나출신 축구스타 디에고·마라도나는 간염증세를 보이고있어 앞으로 3개월동안 휴식을 취해야한다고 팀닥터가 16일 밝혔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96>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부드러운 겨울 ㉒

곧 밥상이 들어왔다. 보리를 듬성듬성 둔 밥은 식구수효대로 어른아이 가릴것없이 한양재기씩이었고, 상 한가운데서 무럭무럭 김이나는큰 양은냄비에선 김치냄새와 꽁치냄새가 심하게 났다.

수지는 그 냄새를 자기가 좋아하고있는지 싫어하고있는지조차 알수없었다. 구역질이 날것처럼 역하면서도강한 식욕이 동하는걸느꼈다.

어느틈에 일남이도 들어오고 밥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김치와 꽁치를 함께 넣고 끓인 찌개를 잘도먹어댔다. 수지몫의밥도 푸고 빈자리도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목이는 수지에게 식사를함께 하자는 말을 하진않았다. 수지 역시 자기속에서 요동치는 구역질과 식욕중 어느것을 달래야할지몰라 엉거주춤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오목이가 자기속을 환히들여다보고 있을것같아 초조했다.

『아이들 먹성이 좋아 참좋겠어』

『삼시 밥만바라고 사는데 먹성 안좋을 재간이 있나요. 그래도 요샌 밥이라도 실컷 먹이게됐으니 우리도이제 큰부자된 셈이에요. 김장도 올핸 백포기나 담갔는데도 어쩌나 잘들먹는지』

오목이가 괜히 또 희희덕댔다. 치마끈 풀러놓은 여자처럼 헤프고 칠칠치못한 오목이의 새로운 면모가 수지를 까닭없이 불안하게했다.

『그럼 이 여러 아이들 밥 굶긴 적도 있단말야?』

『예미가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설마 끼니를 아주 굶기기야 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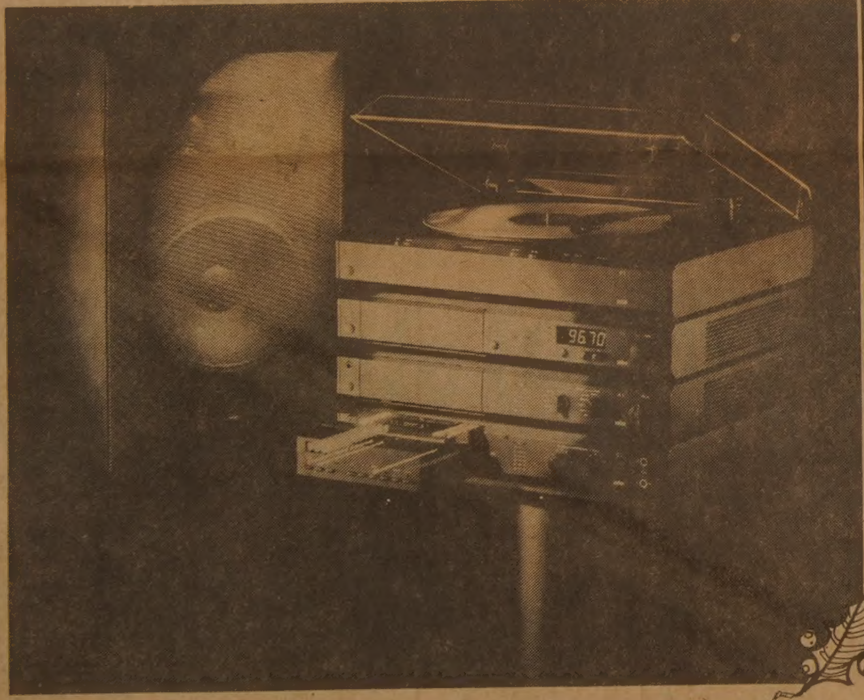
『아주 굶기지않으려니 오죽했겠어? 우기사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이 어째 그럴수가 있담. 이젠 마음 잡았다는거 믿어도 될까?』

『되구말구요. 이 녀석 낳고 마음 잡았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녀석 돌이 지난걸요. 이녀석이 복뎅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끼니 굶기도 어려웠던 게 어디 그이 탓만인가요? 몇년전만해도 우리말고도 이 동네 굶는 집 많았어요. 우거지 주워다가 수제비 끓여 끼니 때우면, 오늘도 죽지않고 살아났구나, 연명한 것만 대견해하던 집들이 요샌 다 밥걱정은 안해요. 세상이 좋아졌나봐요. 집집마다 김장도 독독이 담가서 우거지 주워가는 사람도 없더라구요. 이 보리밥도 언니 쌀 아끼느라고 둔거 아니우. 보리가 글쎄 몸에 좋대요. 영양가가 쌀보다 높고 게다가 만병통치약이라면서요? 그래서둔거예요. 겨우 이팝 실컷 먹일만하니까 보리가 또 그렇게 좋을건 뭐유? 참 좋고도 웃기는 세상이에요』

오목이가 또 희희덕댔다. 제발 그만 웃으라고 악을 쓰고싶게 수지는 오목이의 희희덕대는 꼴이 보기싫었다. 불길했다. 문득 수지는 숟갈을 놓은 일남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민감한 소년 역시 엄마의 헤픈웃음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수지는 계집애들과는 전혀 다르게 수려한 이마를 가진 소년의 얼굴에서린 불안과 우수를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음속까지 젖어드는 것 같았다. 소년을 예뻐하고 가엾어하는 마음으로 젖어오는 느낌때문에 수지는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속속들이 메말랐었나를 알것같았다.

수지는 황급히 일어났다. 뭔가 저지를것 같은 느낌때문이었다. 오목이는 구태여 붙들지않았다. 내가 원하는건 파멸일까? 수지는 자기속에서 회오리치고 있는 강렬한 바람의 정체를 모르는채 다만 두려워서 전전긍긍했다.

CHRISTMAS SALE



Braun atelier 1.
Superior Technology.
In a Superior Design.
BRAUN

아카데미 TV·STEREO

EAST
MORNINGSID MALL
255 MORNINGSIDE AV. SCAR.
KINGSTON RD. & MORNINGSIDE
☎ 282-2820

WEST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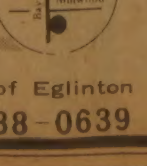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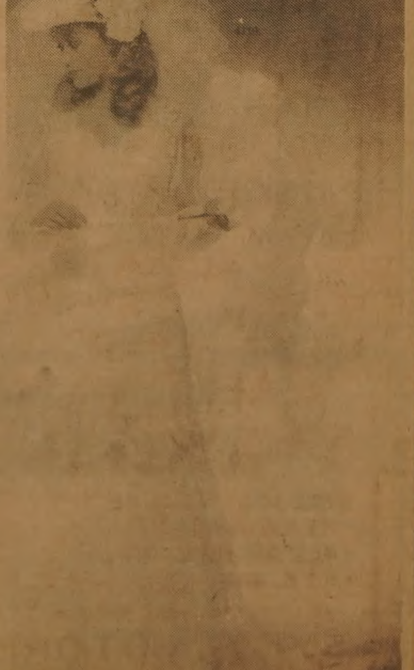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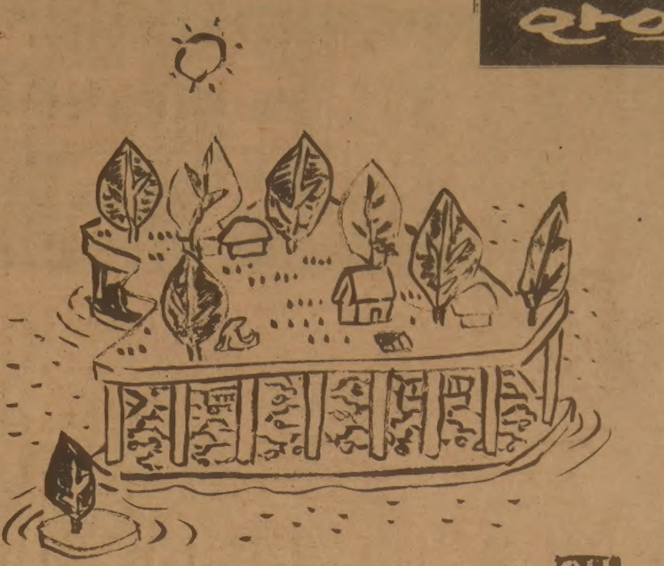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이런 方法도 있는데…

서울의 車溢 현상。

사건記者 수첩

酒党들 조심! 술집서 "외상 안된다"고 殺人까지

신문에 안난 現場

술집을 잘못 골라 들어섰다가는 주머니를 홀랑 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위험이 있다. 술을 마시다 돈이 모자라 2만여원을 외상으로 달자고 하던 손님이 술집 주인과 웨이터에게 흠씬 두들겨맞고 끝내 숨졌다. 또 다른 맥주집에선 맥주 3병에 안주 1접시를 시켜 먹은 손님에게 10만8천여원을 요구하며 시계를 풀게 하고 맥주홀과 여관에 7시간 동안 감금했다. 술집이 아니라 폭력·강도들의 집단과 다를게 없었다.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사건이 많았던 지난 한주의 「기자수첩」을 펴본다.

관광객 지갑 찾고 싱글

▲일본돈과 홍콩달러, 대만돈등 우리돈으로 모두 4백여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던 외국관광객이 지갑을 되찾은뒤 『코리안 넘버원』이라고 칭찬을 연발.

3박4일여정으로 지난1일 우리나라에 온 싱가포르인 沈明山씨(30)는 이날 하오 3시께 龍仁민속촌을 찾아 崔吉順씨(여·53·서울강남구반포동 반포아파트86동203호)가 경영하는 파전집에서 동동주를 마신뒤 너무 취해 지갑을 이곳에 놓고 일어섰던것.

이날 하오 청소를 하다가 이 지갑을 주운 주인 崔씨가 지갑속에서 沈씨가 묵고있는 롯데호텔의 표찰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하여 주인을 찾아주었다.

지갑을 되찾은 沈씨는 『귀국하면 코리안의 인심이 좋은것을 널리 알리겠다』면서 시종 싱글벙글.

▲경남金海경찰서는 3일 소판 돈을 뺏기위해 아버지를 살해한뒤 강도로 위장 신고한 崔영백씨(24·金海市因下洞507)를 존속살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달28일새벽2시30분께 자기집에서 아버지 崔경용씨(54)의 소판돈 3백70여만원을 뺏기위해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다 유리창 깨지는소리에 놀라 잠자리에서 뛰쳐나온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것이다.

예배실 턴 상습 處女犯

▲서울시경은 6일 金聖姬양(25·서울서대문구홍은동404)을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

金양은 지난4일하오1시께 서울서대문구정동 H호텔 예식장 폐백실에 결혼식장의 하객을 가장하고 들어가 신랑 朴모씨(29)가 한복으로 갈아입기위해 양복상의를 벗는것을 보고 접근, 자신이 옷을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는체하면서 안주머니속에서 현금33만원이 든 돈지갑을 훔치고 이어 신부언니의 5만5천원이 든 핸드백까지 들치기 했다는것.

金양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79년이후 모두 5회에 걸쳐 79만여원상당의 금품을 훔쳤음이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는데 『지난78년부터79년사이에 明洞 모드레스살롱에서, 예식장으로 드레스를 배달하면서 이같은 범행이 손쉽다는데 착안,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진술。

방탕 정육점 종업원 주인충고하자 살인

▲4일상오1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34의35 칠보정육점(39·주인 崔恒燮) 안에서 종업원 朴永植씨(33)가 주인의 오른쪽 가슴등을 흉기로 찔러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4년전부터 崔씨가 정육점과 함께 경영하는 유림장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해왔는데 이날 상오 崔씨가 『우리집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방에 있던 길이 40㎝가량의 식칼을 들고나와 정육점안의 의자에 앉아있던 崔씨의 가슴을 두군데 찔러 쓰러뜨린뒤 그대로 달아났다는것.

崔씨는 朴씨가 최근들어 경마장·당구장등을 돌아다니며 월급을 탕진하는것을 나무라며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차라리 해고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것.

경찰은 朴씨를 살인혐의로 수배했다.

술값외상에 폭행치사

▲경기 龍仁경찰서는 2일 술값을 외상하자는 손님에게 뭇매를 때려 숨지게한 龍仁군器興면新葛리 동경열차살롱 주인 李인영씨(37·기흥면上葛리160)와 웨이터 孔문삼(25)·朴상용(20)·金기현씨(20)등 4명을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밤 11시께 손님 金창수씨(29·기흥면舊葛리403의16)가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신뒤 술값 2만3천5백원이 모자란다며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자 집단구타,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게 한 혐의다.

술값지불 시비로 친구가 친구 찔러죽여

▲서울 태릉경찰서는 24일 술값 지불 때문에 싸움을 벌이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朴光鎬씨(21·공원·서울 동대문구 신내동537)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친구인 韓英熙씨(21·서울동대문구 신내동325)와 함께 근처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다 韓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자 韓씨가 다니는 회사의 기숙사까지 뒤따라가 왜 창피를 주느냐며 韓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

<그림·檀大雄>

포획료못내 멧돼지공매

▲멧돼지사냥을 나섰던 포수가 1백10근짜리 멧돼지 수놈 한마리를 잡았으나 포획료를 내지 못해 공매에 붙였다.

강원도寧越군下東면臥石리 張日東씨(48)는 지난29일 하오4시께 마을뒷산 해발 5백m지점 계곡에서 엽총으로 멧돼지를 잡았으나 영월군청에 납부할 포획료 10만원이 없어 할수없이 잡은 멧돼지를 공매에 붙였다는것。

멧돼지를 구경하러 군청광장에 몰려든 1백여명의 주민들은 입찰가격이 최소한 50만원은 될것이라는 말을 듣고 씁쓸한 표정이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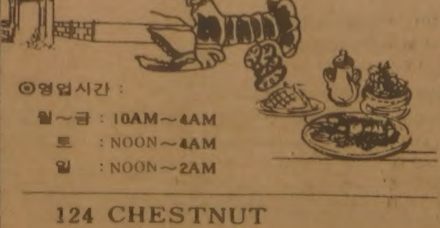
▲남편의 관심을 끌기위해 허위로 강도신고를 한 주부가 유치장신세를 졌다。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HoneyHome BakeShop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 TRAY
주문 받습니다.
☎ : 961-9780 MRS. 장
☎ : 536-1908(R)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海外토픽

日야쿠자 美까지 進出
새 마약密賣場을 형성

일본의 조직폭력배 야쿠자는 최근 태평양 너머 하와이및 미국 서부해안에까지 활발히 발을 뻗쳐 이 곳에 새로운 마약밀매망을 형성하려하고 있다고 윌리엄·스미드 미국 법무장관이 고충을 토로。

스미드장관은 지난달 일본방문기간에 기자들과 만나 야쿠자와 미 지하폭력단과의 제휴가능성에 대한 미정부의 우려를 표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야쿠자는 美,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에까지 확대하면서 합법적으로 미기업들을 인수, 그들의 불법활동을 은폐하고 있다는것。

야쿠자의 미국상륙은 이미 70년대부터 시작돼 미국사회에 그 악명이 점차 알려지고 있는데, 스미드장관은 조직범죄와 마약밀매망을 분쇄하기위해 美·日 두 나라의 형사범죄수사 협조를 위한 조약체결협상을 벌이자고 제의, 日本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人工심장 이식 클라크氏 入院중에 집에 도둑침입

세계최초로 영구인공심장을 이식받은 바니·클라크씨(61)가 유타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최근 미국 워싱턴주 메모인에 있는 그의 집에는 도둑이 침입,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다고。

클라크씨의 아들인 게리·클라크씨(37)가 전한 바에 따르면 도둑은 가족이 모두 부친의 수술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 침입했다는것。

그러나 이렇다 할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이 도둑은 훔쳐 갈만한 물건을 뒤지기위해 모든 서랍을 열어서 물건들을 마룻바닥에 마구 흐트러 놨으나 피해는 문에 약간의 손상을 입은데 불과하다고。

게리·클라크씨는 현지 경찰이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앞으로 집을 잘 감시해 줄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AP】

사건記者 수첩

택시기사, 海外취업사기

▲서울 동부경찰서는 4일 택시운전사 朴鍾龍씨(41·서울 성북구 동선동5가120의1)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사 朴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길다방에서 전날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탔던 金憲柱씨(44·전북 益山군 용안면 대저리 516)를 만나 『잘아는 사람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기능공으로 취업해 월 7백달러 이상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고비조로 7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 지금까지 이같은 숫법으로 33명에게 모두 2천3백30만원을 사취했다는것。

▲서울시경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E떼주홀 종업원 朴文洙(22)·郭洙華씨(28)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朴씨등은 지난 11월24일 자정께 술에 취한 李모씨(42·서울중구신당동)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강제로 자신들의 맥주홀로 끌고 간뒤 맥주 3병과 안주 한접시를 먹게하고는 술값으로 10만8천9백원을 요구, 이씨가 차고있던 시계를 풀어주자 현금을 내놓으라며 인근여관과 맥주홀등에 7시간동안이나 감금한 혐의다。

夫人 입원시킬 택시 돈가방싣고 줄행랑

▲1일밤 10시40분께 서울강남구반포본동 2블록2호 앞길에서 부인을 입원시키기위해 택시를 타려던 朴鍾玉씨(36·상업·종로구창신1동 삼일아파트4동405호)가 택시운전사에게 2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사기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朴씨는 이날 경찰에서 부인 宋順子씨(36)를 입원시키기위해 자신이 경영하는 잔이음식점 계주집앞에서 번호미상의 영업용택시를 세워 입원비등으로 현금30만원,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등 모두 2백여만원과 옷가지등을 넣은 가방을 먼저 실은후 부인을 택시에 태우기위해 가게안으로 잠시 들어간 사이 운전사가 차를 몰고 달아났다는것。

▲서울시경은 1일 金喜洙(47·서울관악구봉천동산158)·金漆仁씨(33·서울구로구독산동756의44)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14일 하오 6시25분께 서울 종로구 송인동 인삼찻집에서 금은중간상 鄭寅達씨(38·서울 성북구동소문동6가217)에게 다이어먼드를 살 사람이 있으니 소개하겠다며 현품을 가져오라고 해 이를 믿은 鄭씨가 다이어먼드를 가져오자 『살 사람이 인삼찻집 2층에 있어 보여주고 오겠다』면서 6푼짜리 다이어먼드 3개(싯가 4백15만원)를 받아 달아나는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5백여만원어치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20일께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모 전당포에 1·27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를 3백50만원에 저당한뒤 1개월후에 다시 찾아가 『다이어먼드를 살사람이 나타났으나 잠깐만 보여달라』고 해 밖으로 나가 2만원짜리 인조 다이어먼드로 바꿔치기 하기도 했다는것。

建材商에 복면강도

▲4일새벽2시20분께 서울서대문구남가좌 2동338의38 충무전재상회(주인 金在貞)에 20대강도 2명이 들어와 제크나이프로 金씨를 위협, 현금 40만원과 손목시계1개등 45만원상당의 금품을 털어갔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사무실안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있는데 20대청년 2명이 들어와 한명은 칼을 목에 대고 다른한명은 준비한 노끈으로 손발을 묶고 범행을 했다는것。

경찰은 1백70㎝ 가량의 키에 점퍼·청바지 차림의 범인들을 수배했다。

가공인물 만들어 땅, 2중사기한 福夫人

▲서울지검특수부는 6일 부동산업자 崔興培씨(40·서울관악구봉천동100의341)와 복부인 朴允玉씨(41·상업·서울용산구후암동375의1)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478의3에 강남개발 부동산이란 복덕방을 경영하면서 80년4월9일 이 복덕방에서 朴모씨(42)에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임야 2천평이 곧 공단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평당 1만5천원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니 평당 1만3천2백원씩 사면 며칠안에 평당 1천5백원씩 웃돈을 받고 팔수있다』고 속이고 이땅의 소유자를 가공인물인 최도범씨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 박씨로부터 계약금으로 2백5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지난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5명에게 7천4백여만원을 사취해 달아났다。

또 박여인은 지난80년4월28일 자신이 드나들던 崔씨의 복덕방에서 이용순여인을 만나 『경기도華城군揚甘면古索리산82의1 임야3천평이 싯가로 평당2천~4천원씩 하는데 곧 공단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크게 뛸것이니 이땅을 사면 며칠안에 책임지고 이익을 붙여 전매해주겠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이씨로 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리=黃升濬기자>

신문에 안난 現場

전북南原경찰서는 3일 박명원씨(24·여·南原군大山면)를 경범죄 처벌법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겼는데 박씨는 지난달 23일하오8시50분께 자기집 안방에 복면강도가 들어와 현금 4천5백원과 금반지 1개를 털어갔다고 신고했다는것。

박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결과 이 신고가 허위임을 밝혀냈는데 경찰에서 박여인은 『남편이 부부싸움끝에 집을 나가버려 빨리 돌아오도록 하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울먹였다。

한시택시안 屍體방치

▲29일상오11시께 서울영등포구양평동4가8 국세청 옆길에서 崔俊永씨(25·삼광인쇄소직원·양평동4가278)가 서울바2634호 한시택시 뒷좌석에 숨져있는것을 길을 가던 趙周衡씨(45·삼광인쇄소 공장장)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趙씨에 따르면 이날상오 8시께 회사근처에 서있는 빈택시를 보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상오11시께가 돼도 그대로 세워져있어 택시안을 들여다보니 崔씨가 뒷좌석에 반듯이 누운채로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趙씨는 숨진 崔씨가 전날 하오10시께 담력제작을 마치고 퇴근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의 원주앞 타이트부분이 부서져있는점 등으로 미뤄 崔씨가 이 차에 치여 숨진것으로 보고 택시운전사 洪모씨(27)를 수배하는 한편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申告현금 주인없자 1년뒤 습득技士에

▲개인택시운전기사가 승객이 차에 놓고간 현금 47만원을 주워 경찰에 습득신고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습득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되돌려 줬다。

원주개인택시 강원1사2317호 운전기사인 馬丙九씨(35·原州시牛山동 산아파트1동204호)는 지난해11월2일하오7시30분께 승객이 놓고간 현금 47만원을 모방송국을 통해 경찰에 습득신고했는데 1년이 넘은 29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이날 습득한 현금을 운전기사에게 주었다는것。

돈을 되돌려 받은 馬씨는 이중 5만원을 독립기념관 건립성금으로 기탁했다고。

▲강원도 江陵경찰서는 30일 K대 법대생을 사칭, 결혼하자고 처녀들을 꾀어 정을 통한뒤 금품까지 사취해온 孫宗烈씨(30·강원도東海시發翰동135)를 혼인빙자간음및 사기혐의로 구속。

전과3범인 孫씨는 지난 4월 강릉교도소에서 출감한 한달만인 5월27일 서울 성동우체국 안에서 편지를 부치러 온 K양(30)에게 접근, 자신은 K대 법대생으로 고시공부를 하고있다며 결혼하자고 속여 정을 통한뒤 입산수도비 명목등으로 지난5일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9백90여만원을 사취했다는것。

孫은 또 지난 7월27일 피서차 강원도 東海시에 온 N양(24·회사원·서울 강남구 반포동)을 만나 같은 숫법으로 꾀어 여관등으로 돌아다니며 정을 통한뒤 4백여만원을 가로챘다。

국민학교만 졸업한 孫은 경찰에서 『용돈이 궁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처녀들이 법과대학생에 고시공부를 하고있다면 쉽게 걸려 들더라』고 진술。

여종업원 입술훔치려다 혀짤린 주방장

▲음식점내실에 침입, 여자종업원을 강제추행하려던 남자종업원이 혀를 물려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1일 새벽3시30분께 부산시東구草梁3동40 S초밥집에서 주방장 신진식씨(25)가 내실의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 혼자 자고있던 여종업원 전모양(24)의 목을 누르며 입을 맞추려다 놀란 전양이 신씨의 혀를 깨물어 2㎝가량 잘려나갔다는것。

신씨는 이어 옆집으로 달아난 전양을 숨겨준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곧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신씨를 강제추행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전양에 대해서도 상해혐의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다。

소매치기범 경찰찔러

▲2일하오7시50분께 서울동대문구신설동 지하철역 구내에서 소매치기 丁海泰군(21·전과4범·서울종로구와룡동1의254)이 뒤좇은 남대문경찰서 역전파출소소속 高英勳경장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고 격투끝에 붙잡혔다。

丁은 청량리행 전동차를 타고가다 차가 신설동역에 도착하기직전, 30대 여자승객의 핸드백속에서 돈지갑을 소매치기하다 함께 전동차를 타고있던 高경장에게 들키자 전동차가 서는 것을 틈타 뛰어달아났다。

高경장과 승객들이 『도둑이야』 소리치며 추격하자 품속에서 길이 15㎝가량의 면도칼을 꺼내 가로막는 서민들을 헤치며 70여m를 도주했는데 丁은 뒤따라온 高경장이 몸을 날려 덮치자 칼을 휘둘러 손과 팔에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며 5분간 격투끝에 붙잡혔다。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36회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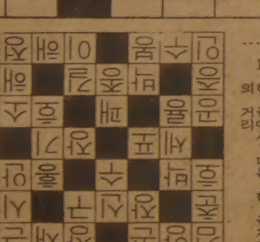
■가로 <힌 트>

아시안 게임 3위 입상에 공헌한 금메달 선수중 7명이 이속에…

1. 2시간22분21초F
3. 훤칠한 키의 멋진 단거리 선수
5.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
7. 못난 여자의 얼굴
9. 혈색이 좋은 얼굴
10. 생물체의 기본적 구성단위
11. 楚나라 漢나라
12. 화석만 남아 있는 거대한 파충류
14. 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함
16. 스탠더드 권총
18. 서울과 의정부 사이에 있는 등반코스로 유명한 산
19. 복싱 라이트미들급

■세로

1. 테니스 복식서만 금메달
2. 옛날 죄수를 다스릴때 쓰[illegible] 기물
3. 허리가 잘록한 우리 전통 타악기
4. 가까운데는 잘 보아도 먼데는 못보는 눈
6. 사람 얼굴에 나타난 건강색
8. [illegible] 48초07 [illegible] 도로개인 4시간30[illegible]
9. [illegible]
12. [illegible]
13. [illegible]
15. [illegible]
16. [illegible]
17. [illegible]



■제35회 퀴즈 정답

숨은그림 찾기

양녕대군

양녕대군은 이조 제3대 태종의 맏아들로 태어나 1404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동생 충녕이 학문에 뛰어나 부왕(父王)의 총애를 받는것을 알고, 충녕에게 세자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거짓 미친광이 노릇까지 하며 왕위를 버린 의지의인물이었다。

그러나 형제의 의는 몹시 두터워 양녕은 나중에 동생이 임금이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으며, 동생 충녕(세종대왕)은 형님 양녕을 정성껏 모셨다。

양녕은 그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풍류객과 사귀었으며, 아우 세종을 돕기위해 암행어사의 자격으로 민정을 살피기도 하면서 많은일화를 남겼다。

전해오는 일화만으로도 양녕의 사람됨을 충분히 엿볼수가 있을것 같다。 임금의 형으로서 온갖 영화를 누릴수 있었으나 그것을 버리고 평민의 생활로 돌아간 양녕의 인생관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슴뭉클한 깊은 감명을 준다。

<작품중에서>

■숨은 그림

부채, 텐트, 콤파스, 옷핀, 못, 펜촉, 물음표, 프라이팬, 낚시, 낫, 칼

구성 장태산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기초반·중급반·상급반
□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Scarborough Town House $59,900
3베드룸, 4 Appliance Good for starter.
◉Don Mill × Lawrence 방갈로 $129,000
3베드룸+1, $35,000 10¼% Good mortgage, Shopping, 교통, 학교, 도서관 매우 편리함.
◉Eglinton × Jane 콘도미니움 $64,900
3베드룸+1 Swiming Pool, Tennis Court 있음. 5 Appliance.
◉Sheppard×Victoria Pk. 세미 디테잇치(좋은 위치)
4베드룸, 4 Appliance, $105,000
◉Markham × Finch 방갈로.
4베드룸+1 가격 $124,900
Lots of extra, Sauna, Fire-Place, Extra large lot.
◉Warden × Sheppard Town Home.
3베드룸, Appliance, Fire-Place, 가격: $84,900
좋은 위치, Financing $44,000 10¼%
◉Scarborough Malvern 가격: $92,000
4베드룸, 방갈로우, Appliance, Draperies,
Only one minute to bus stop.

★ Variety Store
(1) 주매상: $4,500/$6,500/$7,000/$11,000/$14,000
(2) Tuck Shop(새로 오픈한)
주매상: $2,500이하 두곳 있음.

★ Shopping Mall
(1) Lottario Ticket Shop
연매상 백만불, 렌트: 월 $1,100, 가격: $235,000, $100,000 다운
(2) Key 센타.
연매상 십만불, 렌트: 월 $432, 가격: $105,000.
(3) Fish and Chip
주매상: $7,500~$8,000, 연 순수입 10만불, 가격: 29만 불
15만불 다운 요함.
(4) 고급 남자 양복점: 시내 중심가에 위치
연매상 15만불, 렌트: $1,950, 연 순수입 4만불, 가격: 6만불.

★ Coffee and Sandwich Shop
주매상: $4,000(5일간 운영) 시간: 7시~5시, 가격: $140, 000
렌트: $1,350(전기포함) 5년+5년+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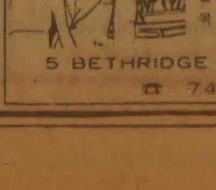
★ Donut Shop
(1) 주매상: $2,200, 하루12시간 영, 일요일 닫음, 렌트: $660,
6년+5년 옵션, 연 순수익: $45,000, 가격: $110,000
(2) Donut Castle : Downtown 렌트: 2,700(내년 2월까지)
$3,240(5년), $3,888(5년), 주매상: $5,500
가격: $199,000 13만불 다운요함.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6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不具의 匠人이 銀粧刀의 脈이어

逆境속에 끈기로 만들어온 전통工藝品

◇양장에도 달수 있도록 개발한 15가지 각종 은장도를 姜씨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인 은장도(銀粧刀)가 맥을 잇고 있다. 선비가 차면 패도, 규수가 차면 장도라고 불렀다. 때로는 호신용으로 사용했으며 여인들에게는 정조의 상징으로 지녔다. 이 은장도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 최근에는 그 모습조차 찾아볼수 없게 됐다. 올해 39세의 姜錫鉉씨(경기도성남시단대1동669의1). <城南=金明鶴기자>

하반신을 못쓰는 姜씨는 땅을 짚고 다니면서도 이 방저방을 뒤듯이 드나들며 열심히 일손을 놀린다.

때로는 바이스 조작을 하기도 하고 프레스에 철판을 넣어 짓누르기도 한다. 불편한 그의 몸이지만 조금도 그의 일손은 불편해 보이지 않다.

어쩌면 정상인이 하는 것보다도 더 일손이 빠르고 재기만 하다.

그가 은장도 만들기에 손을 댄것은 14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8살때 무릎 관절염을 앓아 하반신을 못쓰게 된것이 계기돼 배우기 시작했다.

어머니 朴月順씨(72)의 등에 업혀 다니면서 고향(전남 광양군 진상면 신시리)에서 全鳳元씨(사망)로부터 익혔다. 부모들은 그의 병을 고치기위해 논(9마지기)과 밭(4마지기), 산등을 팔아 약값을 댔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하반신을 못쓰는 대신 재능은 남달리 뛰어나 그는 쉽게 全씨의 문하생이 돼 은장도의 기술을 전수받게 됐다.

그러나 姜씨가 21살되던 해 스승인 全씨가 세상을 뜨고 기자재가 모두 새 주인에게 넘어가면서 고달픈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됐다. 공장이 팔릴 때마다 姜씨는 덤으로 팔려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됐다.

70년에는 공장이 서울의 새 주인을 맞아가자 그도 함께 따라가야 했다.

원효로에 차려진 이 공장은 처음엔 잘 돌아갔으나 이 공장도 1년만에 문을 닫게 되면서 그는 직업을 잃게 됐다.

할수 없이 그가 간 곳은 서울삼양동에 사는 누님집이었다. 여기서 姜씨는 옛날의 은장도가 아닌 현대감각에 맞는 은장도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연구에 들어갔다.

옛날의 양가 규수의 한복에 달린 은장도에서 양장에도 달수 있도록 하는 은장도 개발이었다.

이 연구는 6개월만에 성공을 거둬 금형을 만들고 자체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반도 조선아케이드에 찾아가 견본을 보이고 판매를 부탁하자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

몇개월 사이에 방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25만원(지금 화폐 가치로 치면 3백만원 정도)을 거뜬히 벌수 있었다.

또 일본에 수출까지 해 한때 큰 재미를 보기도 했다. 심지어 자가용족들이 대문앞에 기다렸다가 가져갈 정도로 붐볐다.

그러나 그후 집을 잘못 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돼 또 고생길을 걸어야 했다. 은행에 저당잡혀 있는 것을 모르고 산것이 화근이었다.

다행히 그의 은장도는 재일교포를 자칭하는 동업자가 도와줘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동업자란 자가 그후 물건값과 각종 재료대를 모두 챙겨 자취를 감춰버리는 바람에 또 빈털터리가 되는 처지가 됐다.

가족들은 방 한간을 얻어 전세들게 하고 자신은 다시 기능공으로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이 무렵 그는 廣州대단지(지금의 성남)로 가면 공장을 할 수 있다는 거래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서울을 떠나 城南으로 가 정착했다.

일감은 서울 D양행등에서 얻어와 물건을 갖다주는 번거로운 일이었다.

이 일도 여의치 않아 일을 그만두고 있을때 신문에서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가 있다는 광고를 봤다.

14살때부터 전수받아 사라진 모습再現

洋裝에 달도록 현대감각에 맞게 개발도

◇불구의 몸이지만 고유의 전통공예인 은장도를 만드는 손길은 어색함이 없다。

이 대회에 그는 은장도 2개를 출품, 다행히도 우수상(2등)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제 그는 뭔가 돼가는가보다 싶어 경기도로부터 3백만원의 융자를 받아 본격적으로 은장도 만드는데에 전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후 경진대회가 있을때 마다 꼭 입선돼 나중에는 서울롯데 1번가에 마련된 관광민예품 전시판매장에 판매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그 때부터 성남의 골짜기인 그의 집에는 귀부인들이 자가용을 타고 내거 몰려와 물건을 있는대로 휩쓸어 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반짝, 77년부터 밀어닥친 불황에다 수출의 길이 막혀 다시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그렇지만 실의하지 않고 姜씨는 꾸준히 은장도 만들기를 계속, 어려운 중에서도 인부 2명과 식구 5명이 매달려 일손을 놓지 않고 있다.

姜씨는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50만원의 지원금을 얻어 활기차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가 살고 있는 20평의 슬레이트집에는 프레스 10대, 커트기 1대, 바이스 2대, 모터, 1대등이 있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가 만드는 품목은 모두 15가지, 가격으로 따져 최고 30만원에서부터 최하 3만원짜리까지 다양하다.

여자용은 여자의 절개를 상징한 松竹을 모델로 하고 있고 남자용은 쌍룡을 모델로 칼자루에 새기고 있다.

은장도에 붙이는 이름도 팔모패도, 을자패로, 도금장도, 편도등 다양하며 길이도 자말 은장도같은것은 15㎝나 되고 있다.

이 자말패도에는 은이 1냥이 들어가고 있으며 하나 완성하는데는 4일이 걸린다.

이 은장도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과정은 칼집을 만드는것이다. 나무를 쪼개서 만드는것이 아니고 일일이 홈을 파 만들기 때문에 어느것보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밖에 공정은 불에 달구어 망치질로 강도를 맞춰 칼날을 예리하게 세우는것과 그 위에 그의 독특한 비법을 써 일편단심이란 세 글자를 새기는것이다.

은장도에 쓰는 나무는 수십년 묵은 감나무의 까만 부분을 떼내거나 대추나무 심, 은, 뿔, 대나무, 산호, 옥등을 선별해 쓰고 있다.

그는 비록 인간 문화재로 지정받지는 못했으나 인내와 끈기로 만들어 내는 작품이 정교하고 아름답기가 그지없어 은장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오늘도 姜씨는 은장도를 만들기위해 갈고 새기면서 자신과 같이 몸이 불편한 박종호씨(27)·김상철씨(26)등 2명에게 기술을 전수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맡겠읍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연말 연시의 인사조차 아차하는 사이에 놓치게 됩니다

올해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일보 광고국으로 전화주십시오

다양한 문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고 받는 손길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겠읍니다

*성탄 특집호 23일 발행(마감 21일)

*신년 특집호 30일 발행(마감 28일)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인도의 라면광고〉

쇠고기를 절대로 쓰지 않는 맛 좋은 델리라면.

때때(한국낙서회)

〈부부싸움〉

마누라는 우거지상, 남편은 죽상, 애들은 울상.

許波(土月文友會)

〈SEX教 창세기 제1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류를 창조한 신은 티브신이니라.」

안대균(원주시반곡동1213)

★〈까마귀가 백로를 보고 한 말은?〉

햇볕에 그을어 건강한 네 모습을 보라!

한키호테(土月文友會·술과 동물난)

〈프로야구 붐 이후 애 많이 둔 집의 유리창〉

엉망진창.

원철연(유머작가)

〈가난했던 조상 탓〉

어렵게 벌고 쉽게 또하더라.

—한국 권투 챔피언—

때때(한국낙서회)

〈미국에서는〉

개한테도 영어로 말해야지,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 듣는다.

이일재(1021 S. Kingsley Dr #6 L.A CA 90006 U.S.A)

〈세월이 藥이겠지요〉

아니다. 甲川의 藥 같은 것이다.

—노처녀—

원철연(부산시남구수영동465의1)

〈회비쌍곡선〉

미국에 있는 아들 딸의 초청을 받은 부모가 먼저 딸네집을 찾았다가 사위가 부엌에서 접시 닦는것을 보고 사위 하나 잘 골랐지 했다.

다음엔 아들네집을 들렀더니 아들 역시 접시를 닦는것을 보고는 한숨을 푹 쉬며 『며느리만은 잘못 골랐어. 쯧쯧…』라고 했다.

甘草(3668 Vabeach Blvd #102 Vabeach Va 23452 U.S.A)

〈어떤 전설〉

어느 지독한 공처가가 어느날 잠꼬대에서 『여보, 당신은 내거야』했더니 그후부터는 공처가신세를 면했다.

許波(서울동대문구 면목1동91의31 3통3반)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

노총각의 짝사랑.

피카소황소(大邱·김상현씨 축하하서신 감사 드립니다)

〈차 이〉

부자는 배가 불러지고, 서민은 동이 불러진다.

원철연(유머작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참 좋은 시절이었지.

—전매청—

〈지구 마지막 날〉

큰소리치고 비웃으면서 죽젰다.

—하루살이—

해모수(서울동대문구면목1동91의31호)

〈타향살이 신세〉

타향객지 서울땅에 홀몸으로 날아와서 향수 젖은 눈망울로 별빛 하늘 쳐다보네. 살얼음 같은 세상, 동만 트면 격정일세. 이내 심정 풀어 줄 임, 어디엔들 있을소냐. 신세타령하여 본들 메아리만 돌아오니 세상만사 둥글둥글 나 좋을대로 살고지고.

최원호(서울마포구공덕2동448의1)

◇알 림

☆이번 주의 최우수작은<까마귀가 백로를 보고 한 말은?>입니다. 한키호테씨! 축하합니다.

상품은 통산·레저장비 전문메이커인 한라스포츠(☎0925)가 제공하는 고급 코헤르입니다.

☆土月文友會는 82년 송년월례회를 오는 25일 하오7시 釜山남포동의 낙서다방(☎0405)에서 가집니다.

처음으로 지방에서 여는 이번 모임에 釜山을 비롯한 영남지방 낙서인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답니다. <久>

(詩) 〈기다림〉

손천식

오늘도 나는 영롱한 아침 이슬 머금은 목을 길게 뺀 한 마리 학이 된다.

청아한 눈망울을 굴리면서 사랑과 희망과 믿음이, 가득 찬 눈에서 떡감는다.

그리고 아침 햇살 받아 빼꿈지 않은 은빛 찬란한 십자가를 챙긴다.

이젠 됐다.

가뿐한 마음으로 날아가자. 기쁨과 환희가 넘실대는 곳.

저 안식의 고향, 임이 계신 사랑의 둥지, 우리의 둥지로 향하여.

(P.O.Box 2285 Jeddah SAUDI ARABIA)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105

連載 소설

지난 줄거리

솔아는 총찬이를 유혹하여 세검정 오속한 술집으로 끌고갔다. 총찬은 만약을 대비해 돌출한 녀석을 뒤따르게 했다. 솔아는 대담하게 나왔다. 공항대합실에서의 총찬이 행동에 반해 다혜로부터 채뜨려가겠다는 육체 공세를 시작했다. 일본애들이 차바퀴 바람을 빼고 야간망원경으로 감시한다는걸 알게 된다. 솔아는 흐트러졌고 총찬은 그저 사내이고 싶어한다.

솔아의 몸은 따뜻했다. 나는 이영롭한 계집애를 그냥 놔두고싶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나를 유혹한다면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체 유혹에 말려들어가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싶었다. 그편이 훨씬 내 신변이나 그들 조직과 부딪치는데 유리할것같았다.

더 솔직이 말하자면 이 여자를 그냥 놔두고 싶지않았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보다도 젊은 여자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아까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를 녹여낼수 있는 특수한 몸짓을 하나 둘 더 소유한 여자같았다.

가슴은 팽팽했다. 겉옷이외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서 내 손이 비집고 들어가기 쉬웠다. 적당하게 긴장한 가슴을 쥐고 그녀의 흐트러진 아랫도리를 쳐다보았다.

꿈틀거리는 요정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것 같았다.

『벗겨 줘.』

솔아는 이불거리며 다듬어가고 있었다. 짧은 호흡이 단절되었다가 이어지고 길고 흐느껴거리는 비음이 다시 잘게 부서지곤 했다.

『일어서.』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냥 벗겨.』

코럭은 소리였다. 단 두 꺼풀만 벗기면 되었다. 그녀가 걸친 것이라곤 그것뿐이었다. 가난뱅이라면 그렇게 간편한 옷차림으로 나돌아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적어도 성능 좋은 승용차 한대는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차림새였다. 취한 체 하는 것인지 내 혼을 빼앗기 위한 수작인지 구분할 수 없게 솔아는 흐느껴내었다.

나는 솔아를 천천히 벗겨 내려갔다. 눈부시게 흰 속살이었다. 군살이 없어서 빼어난 조각 한점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앙징스런 헝겊조가리 한개 뿐이었다.

『날 사랑해 줘.』

솔아는 금방이라도 까무라칠 것처럼 흐느끼듯 말했다.

마지막 헝겊조가리 한개, 더 흐트러지거나 무너질 게 없는 여자, 더 열락을 아는 듯이 꿈틀거리는 여인의 육체. 한꺼풀만 벗겨 내면 내 잠자던 욕망을 한껏 불 사를 수 있는 여인.

건드리기만 해도 자지러질 것 같았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그녀를 건드렸다. 그녀는 엉덩이를 들지 않았다. 흐트러져도 육체에 자신이 있는 여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은 그런 것이었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솔아의 육체였지만 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일본애들의 편에 빠지지 않은 여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육체를 내던진 여자가 아니라면…

『날 갖고 싶어?』

솔아가 물었다.

『그래.』

『우리들의 첫날밤이 너무 시시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그녀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엉덩이를 올려주지 않았다.

『난 우리들의 첫날밤을 황홀하게 보내고 싶어.』

솔아가 반쯤 허리를 들고 말했다.

『황홀하게 해줄게.』

『여기선 싫어. 신경쓰여서.』

『괜찮아. 내게 맡겨.』

『아이, 싫어. 우리 호텔로 가. 응!』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럴만큼 여유가 없었다. 그녀를 마시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 호젓한 음식점에 있는것이 차라리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를 지켜주는 애들도 있고 일본애들이 문제를 일으킬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급해?』

『난 모든게 급한 놈야.』

『밤은 한없이 길잖아. 난 자기거야. 이게 우리들 숙명인거야. 나, 착한 여자될거야.』

『넌 내거지?』

『응.』

『벗어.』

『여기선 싫어. 불안하잖아.』

『정말 싫어?』

나는 다그치듯 물었다.

『호텔로 가자니까. 어서.』

그러나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의 표정이나 움직임은 거부의 몸짓이었다. 여자가 몸짓으로 거부하면 절코 육체의 잔치를 벌일수 없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총찬씨, 난 우리의 첫날밤을 황홀하게 보내고 싶어요

나는 솔아를 놓아 주었다. 그런 행동이 그녀의 계획이라면 내가 고집부려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팽팽하게 경직된 내 아랫도리가 아팠다. 그녀는 그걸 아는지 갑자기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가벼운 마찰로 내 흥분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녀는 옷을 입었다. 당당하게 서서 부끄러움 없이 옷을 입었다. 머리를 매만지며 솔아는 생긋 웃었다.

『가요.』

한 꺼풀을 걸치면 여염집 처녀처럼 변하는 것도 여자들만의 혜택인지 모른다. 그녀는 단정하고 차가운 여자로 환원된 듯 했다. 호텔로 들어가 조금 아까처럼 초조하게 젖어드는 여자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유혹하기 위해선 대담할 수 있어도 육체를 나누어 갖기 위해선 수줍을 것 같기도 했다.

밖으로 나와 모른체 하고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앞자리에 올라앉았다. 전진기어를 넣고 차가 움직이자 바람 빠진 바퀴가 더 내려앉았다.

『왜이래?』

나는 혼자소리처럼 말하고 시동을 껐다. 한쪽 바퀴의 바람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

『펑크난 모양인데.』

나도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솔아가 차에서 내렸다.

『어떻게 하지?』

『택시 타요. 가까운데, 뭘.』

『차는 어쩌고.』

『내가 전화해놓을께요. 내 차 운전사한테 고쳐놓으라고 하면돼요.』

나는 망설였다.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끼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솔아는 내게서 자동차 열쇠를 빼앗듯이 받았다.

『걱정말아요. 내가 알아서 차질없게 호텔앞에 갖다놓으라고 할테니까.』

솔아는 열쇠를 쥐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다 일러놨어요. 좀 좋은 차타고 다니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성질나면 좋은 차 한대 사주쇼.』

『정말요?』

『괜히 농담 따먹기 하는 사람인줄 알아요?』

『그까짓 거야 쉽죠, 대신….』

솔아는 덥석 말꼬랑을 끼고 말끝을 흐렸다.

『대신 자지러지게 사랑해 주면 될 거아뇨.』

『하는 것 봐서 결정하죠.』

솔아는 생긴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어차피 그들 집단의 계획대로라면 내게 차를 한대 좀 기증할 수 있거나 차를 사주기 전에 감쪽같이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대답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나님. 알려드립니다. 육체로 공격하면 육체로 막을 것이며 정정당당하게 주먹을 휘두르면 주먹으로 대결할 겁니다. 그러나 비열하게 대들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은 잔소리해서 안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방관자여야 합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었고 잘사는 나라 편이었으니까요.

쪽발이 애들이 휘젓고 다니며 온갖 추태를 다 부려도 하나님은 그들 편이었읍니다.

하나님이 편 드는 잘사는 나라의 녀석들이 어찌 되는지 하나님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합니다.

정말 말똥말똥하게 뜨고 계십쇼.

O호텔의 아담하게 꾸며진 객실로 들어섰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넓은 방안은 산뜻하게 꾸며져 있었고 방안의 온도는 쾌적할 만큼 따스했다. 솔아가 앞장 서는대로 따라다니기만 했다. 어차피 그들의 계획에 철저하게 말려들 결심이었다.

『샤워해.』

신혼여행 온 여인처럼 솔아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같이 하자.』

그녀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대답하기 전에 벌써 내 손이 그녀의 보드라운 속살을 거머쥐고 있었다.

『살살 다뤄 줘. 아프단 말야.』

『어차피 오늘 밤 기절할텐데.』

『그땐 그때고.』

『들어가.』

그녀를 벗겼다. 아무리 보아도 빼어난 몸매였다. 내가 나신을 본 것 가운데 이처럼 빼어난 여자는 없었다.

솔아는 내 옷을 하나씩 벗겨 주었다. 솔아가 먼저 욕실로 들어가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철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숨기고 다니던 표창을 한 개쯤 손쉬운 머리맡이나 발치에 감추어 두고 싶었다.

『문 잠갔어?』

나는 솔아가 벗기는대로 내버려둔 채 부끄러움을 사이듯 이렇게 물었다.

『별 걱정 다해. 호텔 첨야?』

『난 순진하니까.』

『쑥맥인가 봐. 다혜가 그렇게밖에 대접해 주지 않았어?』

나는 그냥 웃기만 했다. 다혜는 한번도 나를 남자로 받아들여 준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모두 나신을 드러냈다.

『멋져.』

감상하듯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할수 없게 그녀를 번쩍 안았다. 욕실의 따스한 물은 두 사람의 육정만큼 철철 넘치고 있었다. 아늑한 욕망의 방이라고 해야 옳을 그런 욕실이었다. 그녀는 비누칠한 몸으로 자꾸 장난을 걸었다. 나도 짓궂게 굴었지만 긴장을 감출 수는 없었다.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이렇게 발가벗은 채 욕실에 들어왔다가 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솔아는 대담한 여자였다. 남자를 다룰 줄 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보면 짓궂은 소녀같기도 했고 달리 보면 육체의 신비를 간직하게 터득한 여자같기도 했다.

『넌, 보통이 넘어.』

『피이, 자기는.』

『나야 순진 빼면 고슴도치지.』

밤은 끝이 없을 거야…난 자기 거야…이건 숙명일거야

『난 고슴도치가 좋아.』

『여러 사내 잡았겠구나.』

『내가 점 찍어서 못먹어 본 사내는 없었어.』

『지금 나도 식사중이냐?』

『내가 먹히는 중이잖아.』

잔물어질 줄도 아는 여자였다. 그리고 남자를 다루는 재주가 뛰어난 여자이기도 했다. 이런 탐욕의 현장을, 넘나들었지만 이만큼 세련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여자는 처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이만하면 우리나라에서 눈뜬 여자들이, 눈독 들일만 하겠는데?』

솔아는 서슴지 않고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술 부리듯 나를 다루었다. 나도 사정없이 그녀를 다루었다. 그녀는 동물처럼 교성을 질렀다.

하나님,

뭘 보슈?

빤히 알면서.

우리는 수건 한 장도 걸치고 나오지 않았다. 그녀를 침대 위에 내던졌다. 울렁했다. 솔아의 육체가 흐느적거렸다. 감미로운 율동처럼 울렁했다. 그녀의 육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담배를 꺼내는 체하며 재빨리 허리띠를 만져보았다. 깜짝 놀랐다. 방문이 잠겨 있는데도 내 표창은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다. 웃옷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비상용 표창도 없어졌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담뱃갑과 라이터를 꺼냈다.

『무슨 담배야?』

그녀는 칭얼거렸다. 그래도 밉지 않았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좀 식혀야지.』

『남자가 뭐 그래?』

『널 기절시키려면 준비 좀 해야지.』

『불을 끌까?』

『난 끄는게 싫은데.』

『부끄럽잖아?』

『몸뚱아리야 다 마찬가진데 뭐.』

그녀는 여전히 투정을 부렸다. 우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나신을 드러낸 채 담배를 피웠다.

그녀는 담뱃갑 사이에 감추어 놓은 두 자루의 표창과 라이터, 볼펜과 옷에 붙어있는 단추가 내가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라는 걸 알지 못하는것 같았다.

솔아는 담배를 피우면서도 계속 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법사의 손가락 같았다. 손가락만 가지고도 나를 무너뜨릴수 있는 여자였다. 머리맡에 손길이 쉽게 닿도록 담뱃갑을 올려놓고 불을 껐다.

『불 끄고 무슨 재미야? 난 자기 걸 다 보고 싶은데.』

솔아가 한 말이었다. 불을 끄지 못하게 하는것도 그들의 작전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의 준비를 끝낸 나는 솔아를 덮쳐 눌렀다. 대번에 숨이 가빠지는 여자였다. 어둠속에서도 우리는 익숙하게 상대를 눕힐 수 있는 몸놀림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육체는 금방이라도 문풍지처럼 울것 같았고, 내 아랫도리는 활화산처럼 치솟아 오를 것 같았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숨가쁘게 달렸다. 언덕을 기어오를 땐 금방 쓰러질 것 같았고, 내리막길을 내려 달릴 때는 금새 결승점에 도달할것 같았다. 숨가쁜 경주였다.

그러나 결승점은 같았다. 나는 솔아에게 지고싶지 않았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녀를 몇번이고 거꾸러 쓰러뜨릴 때까지 나는 침몰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다른 생각을 했다. 그녀에게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남자다운 육체를 가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금방이라도 일본애들이 뛰어들어올것 같다는 생각만 하면 치닫던 열정의 꽃이 시들듯이 흥분을 삭히곤 했다.

나는 결코 질수 없었다.

솔아는 비명을 질렀다. 견딜수 없는 침몰의 순간에 그녀는 나를 쥐어뜯었다. 짐승의 소리였다.

그녀는 축 늘어졌다.

그러나 난 멈추지 않았다. 솔아를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남자를 사냥하는것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고 싶었다.

『살려 줘, 제발.』

숨 넘어가듯 그녀가 애원했다.

『내가 기절시킨다고 했지?』

『알아, 내가 졌어. 기절할께.』

『안돼. 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제발 살려줘. 정말 죽겠어.』

『정말 죽인다니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졸린 사람처럼 숨을 탁탁 끊었다. 이 여자를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것이 내 오기일지 모른다. 내 육체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나를 계속 충동질하고 있었다.

『살려 줘, 제발, 제발… 아아….』

땀으로 범벅이 되어 그녀는 늘어져 버렸다. 나는 그때서야 내 욕망, 사내다운 욕망을 한순간에 쏟아버렸다.

『아아…. 아아….』

그녀는 말할 힘조차 없었는지 길고 여린 비명으로 숨을 끊었다. 온통 수분이었다. 땀과 수액과 욕망의 분비물 뿐이었다. 솔아는 아예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져 뒹굴었다. 나는 승리자처럼,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온 승리자처럼 담배를 빼어 물었다.

담배가 달디 달았다. 쾌락의 꼭지점을 점령한 내 육체도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러나 승리감을 지울 수는 없었다. 어쩌면 다혜에게 풀지 못한 욕정의 한을 솔아에게서 풀어버렸는지 모른다. 아니, 다혜와 솔아를 한꺼번에 정복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한참만에 솔아는 흐느끼듯이 말했다.

『정말 날 죽일 셈였어?』

『그래.』

『지독한 남자.』

『세상엔 이런 남자도 있다는 걸 알아둬.』

『난 죽는 줄 알았어.』

『죽이려다 봐 준 거다.』

『……』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엉금엉금 일어나 물병을 들어 정신 없이 마셨다.

『날 데려다 줘.』

솔아는 욕실을 가리켰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시 그녀를 침대에 던졌다.

『또?』

『날 기절시키겠어.』

『조금만 봐줘. 정말 좀….』

솔아가 애원하듯 말했다. 나는 사실 그녀가 두려웠다. 그녀의 기를 꺾어놓고 싶었다.

『봐 주래?』

『응, 제발….』

나는 그녀를 안아다 욕실에 넣고 샤워기를 틀었다. 그녀가 벌렁 누웠다. 나는 거품을 마구 일으켜 닦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다음호에 계속〉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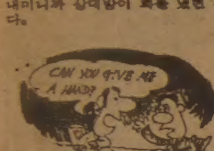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CAN YOU GIVE ME A HAND?

한국에서 사무직에만 종사하던분이 이민 와서 나사조립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하루는 미국인 동료가 작업 중에 Can you give me a hand? 라고 물었는데 「손을 줄수 있는가?」로 알아듣고 손을 앞을 내미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었다.

그도 그럴 것이 give someone a hand란 손을 내밀라는 뜻이 아니고 help someone, 다시 말해서 일손이 부족할때 「~거들어 주다」 「~을 도와주다」 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 미국인이 한 말은 「내가 하는일을 좀 거들어 달라」 는 뜻으로 한 말인데 도와주는 대신에 손만 불쑥 내미니까 상대방이 화를 낸 것이다.



「이 의자를 옮기려는데 좀 도와주시겠소?」를 전치사 with를 넣어서 해본다면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chair?라고 하면 되고 「내가 영어숙제를 하는데 좀 도와주겠소?」 Can you give me a hand with my English homework? 하면 된다.

A : Are you busy, Al?
B : No, I'm not. Why?
A :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chair?
B : Sure. What are you trying to do?
A : I want to put it on the other side of the room.
B : Sure, I'll help you.
A : 바쁘세요, 에엘?
B : 아니예요, 왜 그러시죠?
A : 이 의자를 좀 거들어주시겠어요?
B : 물론이죠. 어떻게하시려는데요?
A : 방건너편에 갖다두고싶은데요.
B : 물론 도와드려야지요.
A : What do you want, John?
B : Can you give me a hand with my English homework?
A : What do you have to do?
B : I have to write a composition.
A : You should be able to do that by yourself.
B : I know, but I don't know what to write about.
A : 도와줄까, 쟌?
B : 내 영어숙제 좀 도와줄 수있겠어요?
A : 뭘 해야하는데?
B : 영작을 해야해요.
A : 그정도는 혼자할수 있어야해.
B : 알아요, 하지만 무엇에 대해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on the other side of:~의 다른편에. Ex. I live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나는 강의 다른편에 살고 있읍니다. composition: 작문. by yourself: 혼자(=alone). for yourself 혼자힘으로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허여멀건씨 최정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베주비오 火山 폭발… 매몰

현대美國人보다 키는 작아

화려했던 생활상…古代 로마인

—2000여년 뒤에 80구의 유골 헤르쿨라네움서 발굴

나폴리와 폼페이 사이의 해변 휴양지에서 베주비오화산 폭발때 매몰된 헤르쿨라네움에서 보존상태가 완벽한 80구의 고대 로마(1900년전)인 유골이 발굴됐다고 발굴중인 美국립지리학회학자들이 발표했다。기원전 79년 8월 24~25일 발생한 베주비오화산 폭발은 청동기 이래 최대의 화산폭발이었으며 1980년에 있은 세인트 헬렌화산폭발의 10배가 넘는 강력한 것이었다。

폼페이 유적지에서는 1700년대에 첫 탐사작업이 시작된 이래 10여구의 유골만이 발굴돼 학자들은 당시 인구가 4천~5천에 이르던 헤르쿨라네움의 주민들이 어디론가 피신해 갔을 것으로 추측해 왔는데 이번에 80구의 유골이 한꺼번에 발굴됨으로써 고대 로마인의 신체구조와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훌륭한 자료구실을 하게 됐다。

발굴단의 사라·비셀박사는 화산폭발당시 폼페이 인근의 주민 2천여명이 사망했을것으로 추측되나 지금까지 발굴된 유골은 14구에 불과, 당시 로마인의 신체구조특징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에 발굴된 유골로 보아 당시 로마인은 오늘날의 美國人보다 키가 작았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26구의 성인유골을 검사해본 결과 영양상태가 아주 좋았다면서 헤르쿨라네움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화려했던 휴양도시로 이곳을 비롯 인근 로마와 나폴리의 귀족들이 화산폭발을 피해 해변가로 피신했었던것 같다고 말했다。

로드 아일랜드대학 화산연구가인 하랄다르·시구드슨박사에 따르면 당시에는 화산폭발에대한 예보가 없었기때문에 사람들은 매시 1백㎞의 속도로 흘러넘치는 용암과 화산재·가스·진흙·바위들을 피하지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다

이때문에 사람들은 용암이 닥쳐오기전에 미리 가스에 질식해서 숨졌으며 뒤이어 도시 전체가 18m 두께의 진흙과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발굴단은 또 원시적인 항해시설을 갖춘 8m 크기의 배도 발견했는데 이 배는 해변에 모여선 사람들을 구하려가다 격랑에 휩쓸려 그대로 가라앉은 채 화산재에 덮여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비셀박사는 기자회견에서 말을 탄채 죽은 37세가량의 남자유골을 공개하고 그의 옆에서 칼이 발견된것으로 보아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키도 1백74㎝에 달해 당시로서는 거한에 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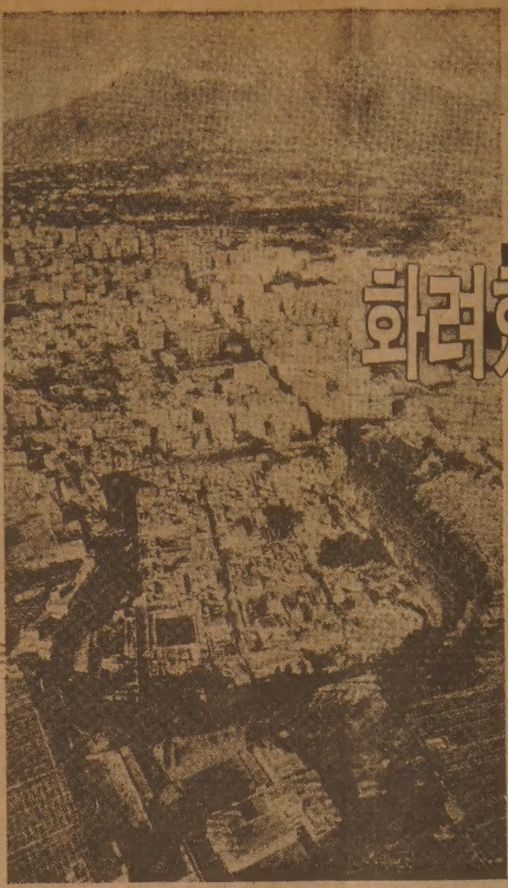
이 군인은 또 지갑속에서 금화와 은화가 같이 발굴돼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며 보석이 박힌 반지를 낀채 발견된 여성도 생존당시 부유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美국립지리학회는 이탈리아 고고학계와 함께 발굴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은 헤르쿨라네움의 3분의1만 발굴했는데 현재 해변에서 5백야드 내륙쪽에 있는 곳이다。이곳은 폼페이의 3분의1 정도 크기에 지나지 않지만 서기、상인、관리등 보통 로마인들이 살고 있던 전형적인 로마의 지방도시였다。

극장의 무대장치와 대리석상、회당의 영웅상회화등을 보면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상당했음을 짐작할수 있다。서민들의 가정에 있었던 신을 경배하는 곳이나 소규모 정원등에서도 중간계급의 면모를 엿볼수 있다。어쨌든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창고가 되고있다。

<뉴스위크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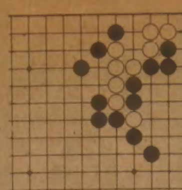


◇베주비오화산이 뒤에 보이는 발굴 현장。

◇보석박힌 금반지를 끼고 있는 로마의 여인。이 해골은 화산 폭발때 대피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화산재에 묻혀버리고 말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화산풍으로 쓰러진 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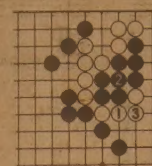
妙手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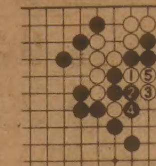


<문제도>

白 先

귀에서 삶수는 있어도 도저히 2집을 만들수 없다。죽고 있는 1점의 활용이 관건이 된다。





<해답도>

제1도=백1로 젖어、흑2에 백3으로 걸어 올리는 수。흑은 4로 뻗을 수 밖에 없으므로 백5로 이어 3점을 잡아 담담히 삶이 된다。

제2도=백1로 나와 3으로 잇고 몽땅 잡을 수 있다。

徐奉洙、曺薰鉉에 귀중한 1勝

—國手도전 3국서 1백91수만에 不計勝 거둬

제26기 國手戰 도전 5번기에서 曺薰鉉國手에 두번을 연거푸 패배, 막판에 몰렸던 도전자 徐奉洙7단이 지난 2일 운정여관서 열린 제3국에서 승리, 관심을 모았다。徐7단은 이날 흑을 쥐고 1백91수만에 불계승。

이 바둑은 曺國手가 11연승 끝에 1敗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徐7단이 曺9단과의 도전기에서만 연 6패끝에 거둔 귀중한 첫 승리로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徐7단의 이날 승리는 그가 오랫만에 연패의 늪에서 벗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냐로 화제가 되고 있다。

○…王位戰 본선 제13국 徐奉洙7단(흑)대 許壯會4단(백)의 대국서도 3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徐7단이 2백49수만에 11집반을 이겨 1승을 올렸다。

이로써 徐7단은 張秀英6단(3승)、徐能旭6단(3승1패)、許壯會4단(3승1패)、河燦錫7단(2승1패)등이 도전자 결정권을 겨루는 선부 그룹에서는 탈락했지만 나머지 2국 모두를 이길 경우 본선 시드에는 남을 수 있게 됐다。

○…금년에 처음 생긴 TV속기대결 제1기 MBC 帝王戰결승 3번기 제1국이 5일낮 생방송으로 벌어졌다。90분동안 진행된 이날 대국에서 曺薰鉉9단은 흑을 쥐고 徐奉洙7단을 5집반점을 내고도 6집반차로 제압했다。

週間 바둑話題

帝王戰결승 제2국은 12일낮12시10분부터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기원은 지난달24일 제49회 이사회를 개최、李弘植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실무진도 개편했다。

개편된 새 실무진은 총무부장에 林東明씨、사업출판부장에는 현역기사인 金秀英6단이 임명됐다。

한국기원은 새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종전 이사중심제의 운영방식을 이사장중심제로 전환시켰다。

○…한국기원은 바둑 캘린더를 제작、본격적인 시판에 나섰다。작년 처음 제작、愛棋家들의 호평을 받았던 바둑 캘린더에는 각종 定石、묘수풀이、사활문제등이 실려있다。정석은 平日에 2백60가지、土·日·공휴일등엔 묘수풀이·사활문제를 실어 수읽기와 실전능력을 기를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원은 이 바둑 캘린더가 愛棋家의 棋力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친지、해외동포등에 보내는 연말 연시의 선물로도 활용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1부 가격은 2천원。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주최 棋聖位쟁취 결승에 올라있는 趙治勳名人·本因坊은 棋聖位쟁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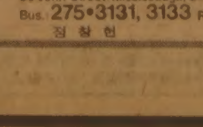
趙治勳과 3번 승부전을 벌일 기사는 가또·마사오(加藤正夫)天元으로 그는 曲勵起 9단과 고바야시(小林光一)9단을 차례로 물리쳤다。따라서 趙治勳은 가또와 棋聖타이틀 보유자 후지사와·슈우꼬(藤澤秀行)9단의 두 관문만 넘으면 명실공히 일본 바둑계의 정상에 서게 된다。

현재 일본 바둑계의 5대 타이틀중의 하나인 天元을 쥐고 있는 가또9단과 「괴물 슈우꼬」로 통하는 후지사와 棋聖은 모두 일본 기계의 정상급 기사들이지만 평소 趙治勳에게 약한 상대들이어서 趙名人·本因坊의 낙승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鎭>

즐거운성탄을 빕니다

밝은 새해를 맞아 존당의 만복과
하시는일 번창하시기를 비오며
삼가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창현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골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que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사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1,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좋은사람 구함. Full Time 주유소(Gain) 영주권자로써 1년이상 거주자. ◉877 Dundas St. W.(Bathurst St. 서쪽 300M)
내 방시간: 9am~3pm, 7pm~9pm

Part Time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전화 : 447-2116 (Mrs. 윤)

Donut Shop Casher 구함.
학생환영(스카보로 지역)
전화: 497-4221 Mrs 김.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Part time 스토아 캐쉬어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88-1634

입주하셔서 할머니를 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275-0339 Mrs. 임
(오후 6시이후 전화 요망.)

밤12시에서 아침7시까지 일할 경험있는
가게 캐쉬어 구함.(Mac's Milk Store)
전화: 421-1089, 250 Laird Dr.(Eglinton)

입주 또는 출퇴근하시면서 3살반된 애기 봐 주실분.
단, 담배피우지 않는분에 한함. ◉스카보로 북쪽.
전화: 496-1664 Mrs. 리

여자 가정교사 초빙
9, 11, 12학년 학생 가르쳐주실 여자분 선생님 원함.
전화: 694-1811, 691-8602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가족같이 애를 봐주시며 지낼분 환영함.
전화 : 669-6438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경험있는 풀타임 요리사 구함.
낮 또는 밤. 1315 Steeles Ave.(Dixie)
Mississauga, Ont. ◉전화: 457-1900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Tofel Michigan Test 준비
아동학습지도(다년간 지도경험) Honour B.A.In Economics
최미경 전화: 242-4745(오후 6시이후)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빌딩과 비지네스 매매.
잘 꾸며진 작은 레스토랑과 2층에 2 Bed Room 아파트.
Queen St. East.(of Dufferin)
아스킹 : $193,000
전화 : 363-2440.
G.R.Paterson Real Estate Ltd.

Winter 피아노, 새피아노 가격 $3,500 를 $2,300에 팔고자 함.
좋은 컨디션과 조율했음.
전화: 665-8233, 636-1430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Montreal Trust Company Realtor.
플라자내에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는 투자가를 찾읍니다.
다운페이: $250,000이상.
딴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
당신에 스페샬 리스트 Dave Lal
전화: 275-5555

Canada's Wonderland 근처의 Gift Shop 매매.
아스킹: $22,900+스탁. 전화: 746-4360 Joe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Take-Out 햄버거 비지네스 팝니다.
Income: $85,000/Y ◉주6일 영업. ◉하루12시간 오픈
문의시간: 오전9시~오후9시. 782-6893 Peter.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Florida,Custom Built 2Bed Rm집.
중앙식 에어콘과 히팅.
대지 80'×125'. 1983년 2월에 입수.
아스킹: $27,500 US달라.
Clearwater에서 35분 북쪽 on U.S. 19. Beach에서 7분거리.
전화: 665-9115

▲휴양지 수페셜라이징한 물개지 회사
Gross: 1 Million이상. 주인은 정년퇴직.
전화: 665-9115

수입 좋은 건물.(Bloor & Dovercourt)
디타치드. 방10개. 화장실3. 부엌2.
10%이자 아스킹: $79,900. ◉$10,000 다운페이.
전화: 298-7000 Silwin.
SILWIN REAL ESTATE LTD.

-"FOR LEASE"
-밀크스토아 장소. Brampton과 Oakville.
Oakdome Realty Ltd.-Realtor John W. Westerberg. 전화: 844-0363

주인이 정년퇴직으로 구두방과 빌딩매매
또는 가게렌트도 합니다.
803 St.Clair Ave. W. 전화 : 654-1455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아파트 쎄브렛. 3Bd. Rm. ◉Albion & Weston에 있는
새아파트. ◉리스: 83년 8월까지.
전화: 488-2436(B), 745-0409(R)

Victoria Pk. 서브웨이에 있는 3Bed Rm. 콘도미니움 아파트렌트 렌트: 월 $695(다 포함)
전화: 698-6415, 624-3849

1 Bed Rm. 아파트 렌트. 교통 편리함.
싱글이나 부부에 적합.(Eglinton & Mt.Pleasant)
전화 : 488-1634

새로 꾸민 지하실 2 bdrm(거실, 부엌, 목욕탕)
세 놓습니다. Bathurst와 St.Clair 지역임. 월 $280
출입구 따로 있음. Mrs.채 Tel: 651-5388

방세 놓음(Victoria Pk. & Finch)
1Room(월 120불) 여자분에 한함.
전화: 497-4221 Mrs. 김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축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연락처 : (416)461-3363(H), 463-7423(B) 송영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퀸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퀸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근하신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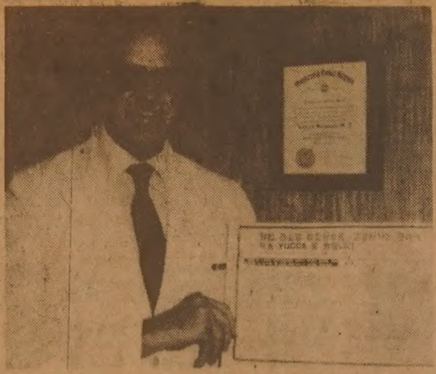
즐거운 성탄과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하옵니다.

카나다 한일은행
HANIL BANK CANADA

라트롬유카 건강제를 권합니다.

임상실험을통해서 의학적으로 효과가입증된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본사 라트롬 유카를 [illegible] 임상실험했던 의학박사 빙햄●



〔로버트 빙햄박사 약력〕

- **현국립관절염의학진료소병원원장**
- **현에스퍼넨자 인터컴뮤니티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
- 미 콜로라도 의과대학 졸업
- 펜실베니아대학병원과 뉴욕 정형외과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수료
- 미국방성군의관(2차 세계대전)
- 미국 외과의사아메리칸학회와 정형외과의사 아메리칸학회특별회원
- 미 서부정형외과의사협회특별회원
- 전 AMERICAN ACADEMY OF APPLIED NUTRITION 회장
- A CHARTER FELLOW OF I. C. A. N.
- 정형외과(관절염)에 관한 임상실험연구저서 50권 이상 발간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진들

- 의학박사 : 빙 햄 DR. ROBERT BINGHAM
- 전문의사 : 해 리 스 M. D. HARRIS
- 생화학박사 : 라 가 Ph. D. LAGAL

■ 관절염 부분 ■

- 의학박사 : 로버트빙햄 DR. ROBERT BINGHAM
- 전문의사 : 벨 로 우 M. D. JOEVA BELLOW
- 전문의사 : 버 날 드 M. D. BERNARO

■ 다른 연구소 임상실험 ■

- 의학박사 : 로버트빙햄 DR. ROBERT BINGHAM
- 의학박사 : 폴아세손 DR. PAUL ISAASSON
- 의학박사 : 로버트엘리어트 DR. ROBERT ELLIOTT

■ 신 문 ■

- 관절염신문협회신문 ARTHRITIS NEWS TODAY
- 의학지 JOURNAL OF NUTRITION TODAY
- LET'S LIVE MAGAZINE
- 한국 여러신문

고 혈 압

■ "환자 202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라트롬 유카를 하루에 2알씩 3번 복용시킨후 임상실험 결과 ■

〔첫그룹〕 평균 혈압이 180 SYSTOLIC/94 DIASTOLIC었으나 라트롬 유카를 6개월 이상 복용후 24 SYS. 떨어진 156 SYS/80 DIASTOLIC이었으며,

〔두번째그룹〕 평균 혈압이 154 SYSTOLIC/86 DIASTOLIC이었든 환자를 6개월 이상 유카 복용후 130 SYS/72 DIA이었읍니다.

【환자 전부가 관절염을 앓고 있었으며, 그중 124명은 만성 관절염 환자였읍니다.】

관 절 염

■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복용시킨 결과 ■

(여자 환자가 64.6%, 남자환자 35.4%) 그중 만성 관절염 환자는 58.9%, 류마치스 관절염 환자 41.1%.)

〔결과〕 60%가 넘는 환자가 탁월한 효과를 보았읍니다"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세】

■ "환자 202명을 대상으로 6개월이상 복용시킨 결과 ■

평균 콜레스테롤이 280mg/100ml이었으나 복용후 60mg이나 줄어든 220mg/100ml이었으며 아주 높은 환자는 평균 330mg/100ml이었으나 56mg/이나 줄어든 284mg/100ml이었읍니다.

피 TRIGLY CERIDEST

높은 TRIGLYCERIDES평균 232mg/100ml이었으나 28mg이나 줄어든 204mg/100ml이었읍니다"

다른 여러가지 질환

자연건강제 유카 성분은 피에 직접 흡수되지 않고 소장과 대장에서 작용하여 장내의 독물을 발생을 제거하여 뼈마디 사이의관절에 이상을 가져오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뿐만 아니라 뼈마디 사이의 뻣뻣 함에서 오는 통증을 줄입니다. 이번 임상 실험결과 많은 환자들이 변비, 간헐설사, 복부 팽만감, 장내개스, 편두통 등에도 효과를 보았읍니다.

■ 계속해서 현재 82년까지 임상실험 ■

국립 관절염 의학 병원과 위의 전문 의사들이 계속해서 2,000여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유카 건강제를 사용 환자들 예방및 치료에 병행해서 쓰고 있으며 그이외 다른 전문 의사들도 유카를 사용 90%가 넘는 환자들이 위의 여러가지 증상에 효과를 본 것으로 관절염 오늘 뉴스에 발표 되었읍니다.

〔알림〕 위의 전문의들과 연구진들은 본사 제품 라트롬 유카로써 임상 실험했던 연구진들 입니다. 위의 연구진들의 임상 실험 결과는 결코 판매 목적이 아닌 의학 전문의들의 연구결과 발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1980년 2월자, 1982년 6월자 "관절염 오늘 뉴스" 신문을 참고 하십시요.

증세가 아주 심하신 분 중 라트롬 유카를 치료법과 병행하여 쓰시고 싶은 분은 본사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담당의사를 통해 직접 라트롬 유카를 임상 실험했던 의학박사 빙햄과 연결시켜 드립니다. 정성껏 도와 드리겠읍니다.

라트롬 유카는 자연 건강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므로서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좋읍니다.

【동부총대리점】
月仁堂
1170 BROADWAY # 603
NEW YORK, N. Y. 10001
BUS: 212 689-2836/7
212 689-7240/1

【판매처】 (MANHATTAN) CiCi 약국 947-3077/3085

【판매처】 (FLUSHING) LEWIS약국 461-5500

【판매처】 (ELHMURST) 서울 약국 565-6296

【판매처】 필라델피아 Mrs. 박 (215) 572-1189

【판매처】 시카고 현대약국 (312) 588-6055

【판매처】 토론토 미 도 파 (416) 536-1692

【판매처】 시카고 브림마 선물센터 (312) 267-3767

저희들의 희망은 여러분들께서 부디 각종 질환에서 해방되어 즐거운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시는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카나다총판매원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